

석사학위논문

국내 기록 보존 연구동향 분석,
2000-2021년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나 연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희진

국내 기록 보존 연구동향 분석,
2000-2021년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Preservation in Korea from 2000 to 2021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나 연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희진

국내 기록 보존 연구동향 분석,
2000-2021년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Preservation in Korea from 2000 to 2021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나 연 회

나연휘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서 은 경 (인)

심 사 위 원 박 성 재 (인)

심 사 위 원 박 희 진 (인)

국 문 초 록

국내 기록 보존 연구동향 분석, 2000-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나 연 휘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 사항과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 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밝힘으로써 기록 보존 연구의 생산성과 연구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 보존 분야 연구 주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요 학술지 2종(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과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 4종(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게재된 ‘기록 보존 연구’ 463편이다.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부여한 주제 키워드를 추출하여 정제한 뒤, NetMiner V.4를 활용하여 연결 중심성 분석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고 시각화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 보존 연구 주제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2000년~2007년, 2008년~2014년, 2015년~2021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 구간(2000~2021)에서 기록 보존 연구 생산성이 높은 연구자는 ‘설문원’, ‘이소연’, ‘임진희’였으며, 연구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독 연구는 점차 감소하고 공동 연구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연구자 소속기관을 분석한 결과, 전 구간(2000~2021)에서 ‘대학’에 소속된 저자는 비율이 73.82%(59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7.61%(61명), ‘기타 정부기관’ 5.24%(42명), ‘기타(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 3.87%(31명), ‘국가기록원’ 3.49%(28명), ‘중앙행정, 지자체’ 2.62%(21명), ‘도서관/미술관’ 2.37%(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 결과, 전 구간(2000~2021) 기록 보존 연구의 주제 영역별 분포를 보면 ‘절차/프로세스’ 영역의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기술, 도구’, ‘기관’, ‘기록물 유형’, ‘법, 정책, 제도’, ‘시스템’, ‘서비스’, ‘이론, 교육’ 순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주제 키워드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기록 보존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 분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제 키워드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아카이빙’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기록 보존 연구에서 세부 주제 영역으로 연결하고 확장성이 높은 주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기록 보존 연구 논문의 중심이 되는 주제 키워드는 전 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와 ‘장기보존’이 핵심 주제 키워드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내 기록 보존 연구주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 ‘OAIS참조모형’ 등 기록 보존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평가’, ‘DRAMBORA’ 등 보존 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실제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는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 보존 연구 주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관리학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개념 및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록 보존 분야 연구의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기록 보존, 연구동향 분석, 연구자 분석,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2.1 계량서지학 연구	5
2.2 네트워크 분석	6
2.2 선행 연구 분석	9
III. 연구설계	14
3.1 연구절차	14
3.1.1 생산성 분석	14
3.1.2 주제 키워드 분석	15
3.1.3 네트워크 분석	16
3.2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17
IV. 연구결과	19
4.1 빈도분석	19
4.1.1 기록 보존 연구 현황 및 구간별 연구 분포	19
4.1.2 연구자 생산성 분포	23
4.1.3 주제 키워드 빈도분석	32
4.1.3.1 주제 키워드 출현 빈도	33
4.1.3.2 키워드 주제영역별 분포	37
4.2 네트워크 분석	44
4.2.1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44
4.2.1.1 전 구간	45
4.2.1.2 제1구간	55
4.2.1.3 제2구간	60

4.2.1.4 제3구간	65
4.3 종합 요약	71
V. 결 론	76
참 고 문 헌	79
부 록	87
ABSTRACT	115

표 목 차

[표 1] 국내 기록관리학·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6종	18
[표 2] 구간별 국내 기록 보존 연구 현황	20
[표 3] 국내 학술지 6종 논문 간행 현황 및 기록 보존 관련 논문 간행 현황 ·	21
[표 4] 전 구간(2000~2021)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 분포	23
[표 5] 전 구간(2000~2021)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3회 이상)	24
[표 6] 구간별 연구자 연구 생산성 비교(구간별 3회, 전 구간 5회 이상)	25
[표 7] 구간별 단일 연구자 및 공동 연구자 현황	26
[표 8] 구간별 평균 연구자 수	27
[표 9] 전 구간(2000~2021) 연구자 소속기관별 분포	29
[표 10] 구간별 연구자 소속기관별 분포	30
[표 11] 단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의 소속기관별 분포 비교	31
[표 12] 전 구간(2000~2021) 주제 키워드 출현 빈도 분포	33
[표 13] 전 구간(2000~2021) 주제 키워드 출현 빈도(10회 이상)	34
[표 14] 구간별 주제 키워드 비교(구간별 5회, 전 구간 10회 이상)	36
[표 15] 8가지 키워드 주제영역	39
[표 16] 전 구간(2000~2021) 출현 빈도 5회 이상 키워드 주제영역별 분포 ·	41
[표 17] 구간별 출현 빈도 5회 이상 키워드 주제 영역별 분포	43
[표 18] 전 구간(2000~2021) 키워드 간의 최단거리	48
[표 19] 전 구간(2000~2021)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4회 이상)	50
[표 20] 전 구간(2000~2021) 연결 중심 값(상위 19개)	52
[표 21] 전 구간(2000~2021)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53
[표 22] 제1구간(2000~2007)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3회 이상)	57
[표 23] 제1구간(2000~2007) 연결 중심 값(상위 14개)	57
[표 24] 제1구간(2000~2007)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58
[표 25] 제2구간(2008~2014)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3회 이상)	62
[표 26] 제2구간(2008~2014) 연결 중심 값(상위 16개)	63
[표 27] 제2구간(2008~2014)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64
[표 28] 제3구간(2015~2021)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3회 이상)	68
[표 29] 제3구간(2015~2021) 연결 중심 값(상위 19개)	69
[표 30] 제3구간(2015~2021)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69

그 립 목 차

[그림 1] 전 구간(2000~2021) 연도별 논문 편 수	20
[그림 2] 국내 6종 학술지의 기록 보존 논문 출판 비율(%)	22
[그림 3] 구간별 연구 형태 추이	28
[그림 4] 전 구간(2000~2021) 연구자 소속기관별 비율(%)	30
[그림 5] 전 구간(2000~2021) 주제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35
[그림 6] 전 구간(2000~2021) 출현 빈도 5회 이상 키워드 주제영역별 비율(%)	41
[그림 7] 구간별 출현 빈도 5회 이상 키워드 주제영역별 비율(%)	44
[그림 8] 전 구간(2000~2021) 키워드 네트워크	46
[그림 9]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47
[그림 10]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47
[그림 11]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 심성 네트워크	51
[그림 12]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 심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54
[그림 13] 제1구간(2000~2007)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 심성 네트워크	56
[그림 14] 제1구간(2000~2007) 3회 이상 출현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 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59
[그림 15] 제2구간(2008~2014)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 심성 네트워크	61
[그림 16] 제2구간(2008~2014) 3회 이상 출현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 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64
[그림 17] 제3구간(2015~2021)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 심성 네트워크	67
[그림 18] 제3구간(2015~2021) 3회 이상 출현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 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70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록된 지식자원을 후대에게 전승하기 위한 가장 최상의 방법은, 기록의 원본 형태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보존이란, 기본적으로 원본형태를 장기간으로 지속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 2004). 현재 및 이전 세대의 과거 경험의 결정체인 지식자원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보존이 필수적이다(국가기록원, n.d.). 정확히 검증된 정보자원을 역사적, 행정적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전략, 물적, 인적 자원, 시설 및 장비 확보 등은 학계의 주요한 이슈이다.

연필, 잉크, 볼펜 등을 사용한 전통적 종이기록물에서 오디오, 비디오, 전자매체 등으로 기록 매체가 변화하며 기록관리학 연구와 실무도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전자기록물이 생산되며 원본성(originality)이 아닌 진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핵심이 되는 등 전통적인 보존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록 보존에 기록물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며 특히 오늘날에는 기록물의 개념이 기록정보로 확장되면서 과거의 물리적 보존의 개념에서 기록정보가 지속적으로 접근, 활용할 수 있는 보존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2, p.139).

2000년 이후, 디지털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문들이 등장하며(이상민, 2000;남성운, 윤대현, 2001;최원태, 2001;신종순, 최찬호, 2001) 국내에서 다양한 기록의 보존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십여 년이 지난 현재, 기록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발전에 따른 대처와 기록의 새로운 유형 증가에 따른 보존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분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한편 연구동향 분석은 한 학문의 일정기간 수행된 연구 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 방향을 예측하게 한다(김성환, 오효정, 2018). 한 학문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부 주제영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수적(김희정, 2005)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동향 분석 논문들은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김규환, 남영준, 2009;최이랑, 2015)와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비교하는 연구(김성환, 오효정, 2018), 정보학 등 특정 주제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장로사, 김유승, 2009) 등이 있었다. 특정 주제 영역을 분석한 연구 중 보존이라는 주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기록 보존과 관련된 연구는 디지털 보존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이소연, 2013)와 디지털 보존과 관련된 특정 주제영역을 분석한 연구(정의연, 최상희, 2018) 등이 있었다. 앞서 국내 디지털 보존의 연구를 분석한 이소연(2013)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약 십 여년간 수행된 연구를 분석하여, 디지털 보존 연구의 다양성과 수행된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정의연과 최상희(2018)는 디지털 보존과 디지털큐레이션과 관련된 학술연구 동향과 교육 동향을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주요 주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기록 보존 연구 동향 분석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디지털 보존’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종이기록물과 디지털 기록물을 포괄하여 기록 보존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는 이에 본 연구는 기록 보존 분야에서의 지난 20여 년간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현재 기록 보존 연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 사항과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 보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밝힘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 보존 분야 연구주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약 이십 여 년간 수행되어 온 국내 기록 보존 연구동향을 생

산성 분석, 논문분포, 저자분포, 소속분포, 주제분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기록관리학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개념 및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수행된 기록 보존 연구의 핵심 영역과 영향력 등 연구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후속 기록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록 보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의 생산성 분석, 주제 키워드별 분석, 주제 영역 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간행된 기록 보존 연구를 연구 시기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 동안에 보여지는 국내 기록 보존 학문 분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 영역이 확장되거나 세부 영역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기록 보존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록 보존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요 학술지 2종(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과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 4종(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을 수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자주 게재되는 주요 학술지로, 수집대상에 포함하였다. 수집대상 시기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년으로, 해당 시기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만을 수집하였다. 수집대상 6종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연구 제목과 초록, 주제어를 확인하였을 때 기록 보존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2000년~2007년, 2008년~2014년, 2015년~2021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요 학술지 2종에 게재된 335편의 논문

과 국내 문헌정보 관련 주요 학술지 4종에 게재된 128편의 논문을 더하여 총 463편의 국내 기록 보존 연구 논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46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기록 보존 연구의 동향을 연구 생산성 분석, 주제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연구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였다.

첫째, 기록 보존 연구 논문에 대하여 생산분포, 저자분포, 소속분포를 파악하여 국내 기록 보존 연구를 수행하는 핵심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와 소속기관, 공동 연구 현황 등 연구자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록 보존 연구의 주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제 키워드는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제 영역이 확장되거나 소멸, 세부 영역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확인하여 키워드 군을 통한 연구 주제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주제 영역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제 영역 간 연결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주제 영역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핵심 주제 영역을 파악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시에는, NetMiner V.4를 활용하며 연결 중심성 분석,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주제 영역의 연결성과 확장성을 파악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계량서지학 연구

연구동향 분석은 한 학문의 일정기간 수행된 연구 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 방향을 예측하게 한다(김성환, 오효정, 2018). 한 학문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부 주제영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수적(김희정, 2005)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주로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은 책이나 잡지기사 등의 주제문헌의 서지를 수량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헌을 통한 지식의 배포 및 소통과정, 그리고 문헌을 통해 표출되는 지식의 온갖 속성과 행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계량서지학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와 논문의 인용 수 뿐 만 아니라, 문헌분석을 통해 학술 연구 활동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며, 그 목적은 연구평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계량서지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논문의 생산성 분석, 연구자의 생산성 분석, 논문의 인용 분석, 주제어 분석 등이 있다. 논문의 생산성 분석은 논문의 저작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서지사항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서지사항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연구자의 생산성 분석은 연구자의 발표 논문 수, 연구자의 소속기관, 단일 또는 공저자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수행된다. 논문의 인용 분석은 특정 주제 분야의 문헌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논문의 인용 횟수, 인용 수명과 반감기, 자료유형별 인용된 논문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주제어 분석은 논문에 사용된 키워드에 초점을 둔 분석법으로, 연구자가 논문에 직접

부여한 주제어 또는 논문의 초록과 본문에서 자주 사용된 키워드 등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계량서지학 연구방법은 최근 네트워크 분석으로 발전되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2.2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Network) 분석 기법이란 발전된 계량서지학적 연구방법론으로, 네트워크란 사물이나 사람들을 그물처럼 서로 연결하여 다양한 유형의 현실세계나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이다(이수상, 2012). 이때 행위자를 나타내는 노드(node)와 그들의 관계를 링크(link)로 나타낸 것을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라고 한다(김희섭, 강보라, 2018). 이는 관계데이터로서 개체 간의 연결구조와 특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별적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통계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곽기영, 2017). 이 중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는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로 표현되는 네트워크로 동시에 언급된 빈도가 높을수록 밀접한 관계로 해석하며 이와 같은 관계가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김희섭, 강보라, 2018).

학문분야의 보이지 않는 지적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계량서지학 네트워크 분석 기법으로는 인용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등이 있으며, 해당 기법을 통해 연구분야 간의 관련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인용 네트워크 분석, 즉 동시인용 분석은 Small(1973)에 의해 제시된 분석방법으로서 제3의 논문이 앞서 발표된 두 논문을 동시에 인용하였을 때, 두 편의 논문은 주제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전제하여 학문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방법으로는 문헌동시인용, 저자동시인용, 서지적 저자결합분석법 등이 있다. 저자동시인용분석은 특정 주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저자명을 이용하므로 그 분야의 상세한 서지정보와 뚜렷한 전문지식 없이 주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문헌이용자들의 인지구조와 정보이용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학문분야의 활발한 연구영역과 각 영역의 주요 연구자들을 파악하여

이용자를 위한 정보수집, 정보검색, 정보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다(이인우, 200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은 키워드 사이의 연결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으로서 특정 주제의 문헌자료로부터 단어를 추출하고, 각 단어 쌍의 동시 출현 빈도와 키워드 간의 연관도를 계산하여 구성하는 분석 방법이다(강경희, 2021). 이는 해당 분야 영역의 학술연구 동향 및 주제영역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시기적 변화 등을 문헌 집합에 나타난 키워드 등의 동시 출현 빈도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방법(배경임, 2021)이기 때문에 동시 출현단어 분석 등으로도 지칭된다. 이것은 텍스트에 동시에 나타난 단어쌍의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어쌍 간의 연결 강도를 통해 유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를 묶거나 네트워크 맵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시기별 네트워크 맵을 통해 학문영역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도 있다(허영수, 박지홍, 2021). 즉, 단어쌍의 빈도에 따라 핵심 주제 영역과 세부 주제 영역을 알 수 있고, 주제 영역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 출현단어 분석은 파리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의 Centre de Sociologie de l'Innovation과 프랑스 CNRS(Centre National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의 협업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현황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하는 데에 사용되었다(허영수, 박지홍, 2021). 이후 Callon, Law, Rip(1986)은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동시 출현단어 분석 관련한 기념비적인 책을 펴냈으며 이후 동시 출현단어 분석은 많은 나라에서 연구방법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He, 1999에서 재인용).

키워드 네트워크는 분석 시 문헌자료의 범위와 양이 모호하며, 추출 기준에 따라 키워드의 적절성이 논의될 수 있으며,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특정 분야의 경향과 패턴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수상, 2012). 또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키워드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조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구조나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네트워크 특성을 설명하거나

구성하는 단위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다(김방희, 김진수, 2014).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자료 내 단어 간 연결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주로 중심성 분석을 시행한다(강경희, 2021). 중심성은 한 단어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중심성이 높을수록 중요한 단어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 중심성 분석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은 다른 키워드와 연결이 많이 된 키워드일수록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개념이고, 매개 중심성 분석(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 사이의 매개자 또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정도에 따라 중심으로 간주한다고 보는 개념이다(손동원, 2013)

연구자가 부여한 주제 키워드에 연결 중심성 분석을 수행한다면 다른 키워드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있는 중심 키워드를 알 수 있다. 다른 노드 간 접근이 용이하며 다른 키워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심 키워드를 알 수 있다. 연구자가 부여한 주제 키워드에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한다면 다양한 키워드를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알 수 있다. 즉, 하위 주제 영역을 이어주는 통제성이 높은 키워드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록 보존 연구 주제영역에서 영향력이 큰 키워드와, 함께 발전한 하위 주제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적합한 다양한 계량서지학적 연구방법론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장점인 특정 분야 연구동향 파악의 용이성은, 기록관리학 분야 중 기록 보존이라는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적절성의 문제 등 해당 연구방법의 한계는, 분석 키워드를 적절한 방법에 따라 정제함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분석 시에는, NetMiner V.4를 활용할 것이다. NetMiner는 2001년에 소개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연결망 분석 모듈과 시각화 모듈이 하나의 패키지 프로

그램에 통합되어 있어 분석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네트워크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포괄적인 네트워크 분석과 방법론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희섭, 강보라, 2018).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간의 연결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시각화하여, 기록 보존 분야의 연구 주제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관련 키워드 간 관계와 특성 분석에는 NetMiner V.4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연결 중심성 분석, 매개 중심성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선행 연구 분석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분야의 계량서지적 특징과 연구패턴, 연구영역을 조사,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 기록 보존을 포함하는 기록관리학 전반의 연구동향을 파악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계량서지학적 분석방법을 통한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연구는 김희섭, 강보라(2018)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의 연구 주제 분석을 위해 창간호인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39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부여 키워드 875개를 수집하였다. 또한 빈도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는데, NetMiner4를 사용하여 이들 주제를 양적, 영향력, 확장성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중 명확한 네트워크 구조를 표현하고자 키워드 정제 과정을 거친 후,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로 그 대상을 제한 하여 총 92개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심이 되는 연구 주제는 ‘기록정보서비스’로 ‘제도 개선’, ‘디지털화’, ‘유형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연구가 진행됨을 파악하였다.

김성환, 오효정(2018)은 8종의 온라인 공개 국제학술지와 6종의 국내 학술지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정보를 통하여 국가별 기록관리학 연구논문 게재 지수를 지리적으로 시각화하고, 5년 단위

시계열 분석을 통해 국제적 동향과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록관리학의 거시적 흐름과 나라별 차이를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연구였다.

다음으로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 계량서지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서은경, 이원경, 박은경, 이옥성(2015)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발표한 논문들의 계량서지적 특징과 연구패턴, 연구영역을 규명하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의 논문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학술적 특징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였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발표된 논문 총 927편을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분석, 저자키워드 분석, 그리고 지적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계량서지학적 분석에서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다른 학술지의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타 학술지와 차이점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정보서비스였고 다음으로는 도서관경영과 독서교육이었으며 서베이 방법과 사례연구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지적구조 분석을 통해 ‘한국비블리아 학회지’의 핵심연구 영역이 ‘공공도서관과 독서 영역’, ‘대학도서관과 장서관리 영역’, ‘학교도서관과 정보활용 영역’임을 밝혔다.

이은서(2020)는 동시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문헌정보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등재된 문헌과 각 문헌의 참고문헌을 추출하여 저자 동시인용 및 문헌 동시인용 쌍을 생성하고 이를 Netminer4.3을 통해 네트워크화 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저자가 연구의 중심이 되어 문헌정보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계량서지학과 정보학 관련 연구가 문헌정보학의 주된 연구분야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헌동시인용분석을 통해 주제 분야의 클러스터가 서비스 품질 평가 및 다문화 서비스,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및 계량정보학 관련 연구 및 동향 연구, Information Commons, LCSH, 기록관리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문헌 동시인용 분석과 저자 동시인용 분석을 동시에 활용하여 인용을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동향을 확인한 최신의 연구라는 의

의가 있다.

정의범, 박진수(2019)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친환경 공급사슬관리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GSCM)의 문헌 조사 및 향후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연구논문의 저자, 소속, 그리고 키워드의 빈도수를 통해 세부 연구주제의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계량서지학적 (Bibliometrics) 방법론과 그 연구 논문들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친환경 공급사슬관리의 주요 이슈, 토픽 파악에 유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다니엘(2020)은 생산성, 저자 및 협업, 연구 영향력 등을 파악하는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음악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예진 허치슨, 차현민, 오재훈, 강형구, 임태호, 이윤재, 강보승, 김창선, 최혁중(2015)는 ‘대한외상학회지’에 게재된 문헌들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계량서지학과 인용분석을 활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량서지학적 분석방법은 기록관리학 분야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 경영학, 음악학, 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연구 방법론으로, 지난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계량서지학적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생산성 분석, 연구자 분석, 영향력 분석, 시계열 분석, 문헌 동시인용분석, 저자 동시인용분석, 저자 키워드 분석, 주제 키워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분야의 추세를 파악하고, 학문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기록관리학 전반 또는 기록 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같이, 기록관리학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동향을 조사한 연구(김성환, 오효정, 2018)와 특정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희섭, 강보라, 2018) 등이 있었다.

장로사, 김유승(2009)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은 총 99편이었으며, 양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자들이 선호한 주제영역은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소연(2013)은 국내 디지털 아카이브와 보존연구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등 기록관리 분야 학술지 뿐 아니라 배경학문을 불문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나 보존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는 연구논문 115편을 수집하였다. 또한 일반연구, 정책연구, 기술연구, 디지털 자원 유형별 연구 등 4가지 주제 영역에 따라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기록관리학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는 디지털 보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의연, 최상희(2019)는 디지털 보존과 디지털 큐레이션과 관련된 국외 논문과 국외 대학 기록관리 과정의 교과를 대상으로 제목 키워드 프로파일링 기법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논문 및 교과 의 핵심 주제영역을 도출하고 논문 및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논문 및 교과의 핵심 주제영역으로 논문은 아카이브 시스템 영역, 교과는 큐레이션 교육 및 업무 영역이 주요 영역으로 나타났다. 논문 및 교과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논문에서는 전략설계, 교과에서는 기록관리업무가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디지털 자원의 포맷이 중요한 이슈로 출현하였다. 이 디지털 보존에 대한 연구동향과 교육 현황을 살펴본 의의가 있으나 해외 사례 중심을 통해 디지털 보존에 대한 연구동향과 교육의 현황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며 향후 국내 사례와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김창한(2020)은 한국 기록관리제도의 중요한 분야인 평가제도와 관련한 그 동안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지난 2000년 이후 약 20년 간 현재 기록물 평가체계의 문제와 관련된 국내 기록물 평가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학위논문과 기록관리학 주요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약 57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공공기록중심 기록물 평가와 평가 연구 탈피, 기록물 조사 바탕 평가 연구, 다양한 재평가 연구 등 현재

기록 평가 분야 연구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기록관리학 분야 내에서도 전자기록물, 디지털 보존, 디지털 큐레이션, 기록 평가 등 다양한 주제 영역의 연구 동향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록관리 분야 내 보존이라는 특정 주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았다. 기록관리 분야 내 보존 관련 동향 연구는 보존의 전반적인 흐름을 담은 연구보다는, 보존의 하위 영역인 디지털 보존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디지털 보존의 연구동향분석 연구를 진행한 이소연(2013)의 연구 또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동향 분석으로, 최신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기록 보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종이기록부터 최신의 디지털기록까지 포괄하여 기록 보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을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되어 온 기록 보존 연구로 하여 간행시기별, 연구자별, 주제 키워드별로 분석하여 기록 보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절차

본 논문은 크게 3단계의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생산성 분석, 주제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순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간행시기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비교한다. 세 구간은 기록 보존 연구에 영향을 준 이슈를 기준으로 각 구간을 7~8년에 한 번씩 나누었다. 제1구간과 제2구간은 공공기록관리법의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2008년, 공공기록관리법이 개정되며 디지털 매체 등에서의 기록 보존의 의미가 강조되며 OAIS참조모형, 디지털 컬렉션 등의 주제가 활성화된 시기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웠다. 제2구간과 제3구간은 기록 보존 분야에서 데이터세트 기록 보존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을 나누었다. 모든 분석은 전구간(2000~2021)과 세 구간(2000~2007, 2008~2014, 2015~2021)으로 나누어 간행시기별 분석을 수행한다.

3.1.1 생산성 분석

국내 기록 보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정보를 통하여 연구 생산성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자들의 간행시기별 연구 생산성, 공동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등 연구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연구 생산성이 높은 핵심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와 공동연구 현황, 연구자 소속기관의 분포 등 연구자 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자군의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생산성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기록 보존 연구 논문을 수집한다.

둘째, 각 논문의 제1저자와 공동 연구자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연구자명은 다음과 같은 정제작업을 통해 표준화한다.

1) 국내 연구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띄어쓰기 없이 통일한다. Ex)

국내 연구자는 ‘나연휘’와 같이 표기

2) 국내 논문 중 국내 연구자는 한글로 통일한다. Ex) ‘Yang, Kiduk’은 ‘양기덕’으로 표기

셋째, 간행시기별 연구자 생산성 분포를 파악하여 핵심 연구자를 도출한다.

넷째, 간행시기별 단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 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연구 추이를 확인한다.

다섯째, 연구자의 소속기관을 수집한다. 소속기관은 특성에 따라 영역별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한다.

3.1.2 주제 키워드 분석

주제 키워드는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국내 463편의 논문 중 2,278개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키워드별 출현 빈도를 확인하고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조사한다. 이때 분석결과는 워드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시각화한다. 그리고 국내 기록 보존 연구의 키워드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주제영역별 분포를 파악한다. 연구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 키워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기록 보존 연구 논문을 수집한다.

둘째, 각 논문에서 연구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수집한다. 단, 키워드가 부여되지 않은 논문은 연구자가 직접 키워드를 추출하고 검토한다.

셋째, 수집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정제작업을 통해 표준화한다.

- 1) 기록관리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Ex) ‘기록관리’, ‘기록’, ‘정보자원’
- 2) 1차 수집 과정에서 사용한 ‘보존’ 등의 단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영문 축약어와 전체 단어의 경우, 전체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 Ex) ‘EAD’와 ‘Encoded Archival Description’의 경우, ‘Encoded Archival Description’을 채택

- 4) 특정지명이나 국가명 등의 고유명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Ex) ‘부산’, ‘영국’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5) 동의어는 용어를 일치시킨다. Ex) ‘로컬리티 기록화’와 ‘지역 기록화’는 ‘지역 기록화’로 통일
- 6) 기록관리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어가 포함된 단어는 해당 단어를 제외한 단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를 일치시킨다. Ex) ‘기록 평가’는 ‘평가’로 통일

넷째, 간행시기별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파악하고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한다.

다섯째, 주제 키워드를 특성에 따라 영역별로 분류하여 주제영역별 분포를 파악한다.

3.1.3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국내 기록 보존 연구의 핵심 주제 영역과 관련 주제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제 영역이 확장되거나 소멸, 세부 영역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를 활용하여, 주제 분야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통해 특정 주제 영역이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 공유하고 있는 분야,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 등을 분석할 수 있다(서선경, 정은경, 2013).

네트워크분석은 NetMiner V.4를 활용하여 분석하며, 관련 키워드 간 연결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 분석(Betweenness Centrality)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키워드 군을 통한 연구 주제 변화를 살펴본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 키워드 수집 정보를 엑셀 파일에 2-mode 네트워크의 Linked List 형태로 변환한다.

둘째, NetMiner V.4에서 변환한 파일을 불러온 뒤, 2-mode degree

분석을 수행하여 키워드의 노드와 링크 수를 구한다.

셋째, 2-mode를 1-mode로 변환하여 키워드 노드 간 동시 출현 네트워크를 수행한다.

넷째, Shortest Path 기능을 통해 최단거리 분석을 수행한다.

다섯째,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을 통해 키워드 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각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고, 가장 다른 키워드와 연결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즉 연결 중심성이 높아 영향력이 큰 키워드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여섯째, 매개 중심성 분석(Betweenness Centrality)을 통해 키워드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매개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양한 하위 주제들을 매개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주제로 확장이 가능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다(이수상, 2012). 매개 중심성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 관계 연결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일곱째, 간행시기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분석의 시각화 결과를 비교하여 연구 주제 키워드군의 변화를 확인한다.

3.2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기록 보존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2종의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와 4종의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를 포함하여 총 6종의 학술지에서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이 간행되고 있었다. 6종의 학술지에서 4종은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이며, 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자주 게재되는 주요 학술지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총 6종의 국내 학술지로, 해당 학술지에서 기록 보존 연구논문을 수집하였다.

[표 1] 국내 기록관리학·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6종

연번	학술지명	분야
1	기록학연구	기록관리학
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관리학
3	정보관리학회지	문헌정보학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문헌정보학
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문헌정보학
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문헌정보학

연구의 수집 대상 시기는 2000년~2021년까지 총 22년이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창간호(2001년)부터 간행된 모든 논문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논문 중,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1차 정제과정을 통하여, ‘보존’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이 중 서평, 연구 리뷰, 부록 등은 제외하고 학술논문(article)이라고 명시된 것만을 선별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경우 ‘보존’이라는 통제어를 통해 1차 정제과정을 거쳤지만, 기록관리학 분야에서의 보존이 아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보존 관련 주제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2차 정제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제목, 초록 및 주제어를 확인하였을 때 학문 분야가 기록관리학 분야의 보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논문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빈도분석

4.1.1 기록 보존 연구 현황 및 구간별 연구 분포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국내 기록 보존 연구는 463편이며, 시 계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수집한 연구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 구간은 기록 보존 연구에 영향을 준 이슈를 기준으로 각 구간을 7~8년에 한 번씩 나누었다. 제1구간과 제2구간은 공공기록관리법의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제2구간과 제3구간은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 보존과 관련된 논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었다. 제1구간은 연구 편 수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의 기간으로 선정하고 제2구간 및 제3구간은 각 7년 단위 구간별로 나누어 제1구간(2000~2007), 제2구간(2008~2014), 제3구간(2015~2021)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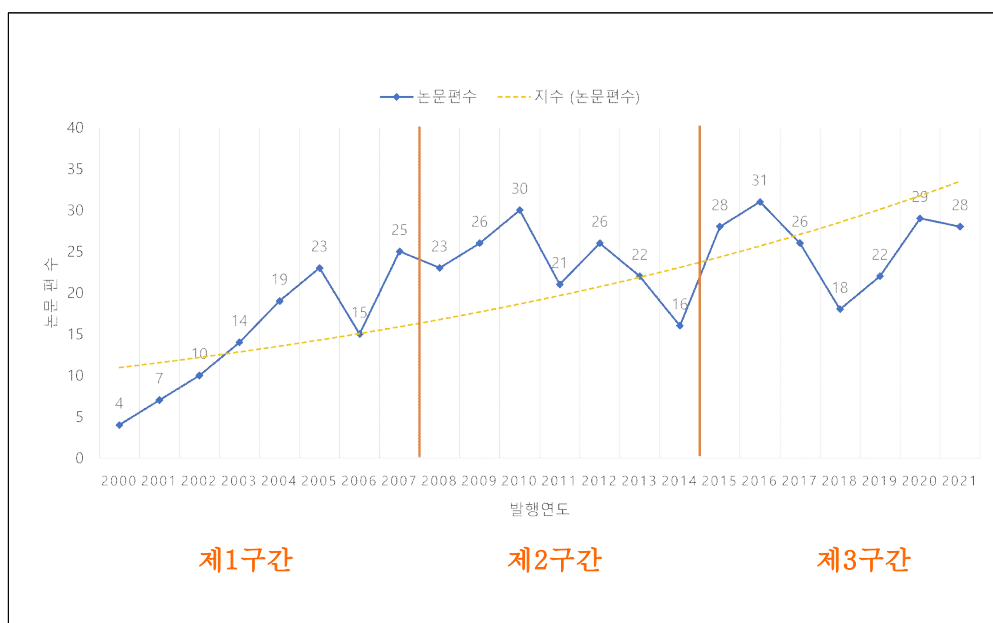
국내에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기록 보존 연구는 총 463편이며, 매년 평균 21.05편씩 발표되었다([표 2] 참조). 전 구간의 연도별 국내 기록 보존 연구 현황은 200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31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그림 1] 참조).

구간별 연구 발표 편수를 살펴보면, 제1구간(2000~2007)은 117편, 제2구간(2008~2014)은 164편, 제3구간(2015~2021)은 182편으로 구간마다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구간은 지속적으로 발표된 기록 보존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다소 낮아졌지만, 2007년 25편으로 제1구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제2구간에서 기록 보존 연구는 증감을 반복하며 2009년과 2010년 각 27, 30편으로 제2구간 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제3구간은 제2구간과 같이 큰 변동

성을 보였다. 2015년부터 2016년에 기록 보존 연구가 소폭 증가하며 2016년 31편으로 매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가 2018년까지는 하향세를 보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29, 28편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다시 활발하게 기록 보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구간별 국내 기록 보존 연구 현황

구간 연구 논문	제1구간 (2000~2007)	제2구간 (2008~2014)	제3구간 (2015~2021)	전 구간 (2000~2021)
연구 논문(편)	117	164	182	463
1년 평균 연구 논문(편)	14.63	23.43	26.00	21.05



[그림 1] 전 구간(2000~2021) 연도별 논문 편 수

국내 기록관리학·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6종의 논문 간행 현황 및 기록 보존 관련 논문 간행 현황을 파악하였다([표 3] 참조). 전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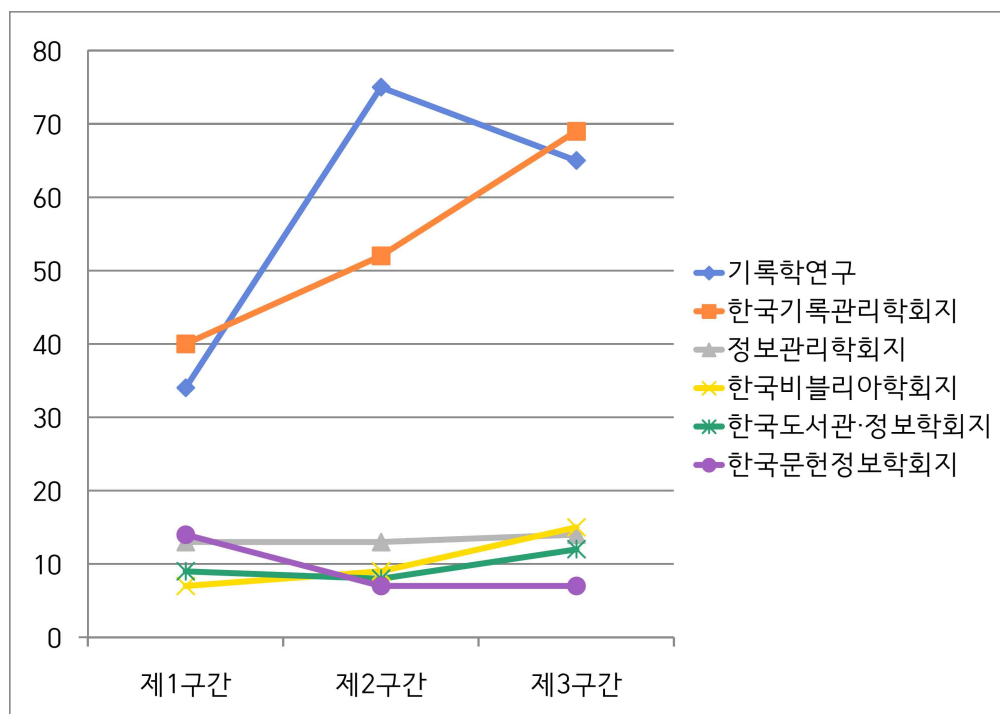
(2000~2021)에서 수집된 기록관리학 분야·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6종의 논문은 6,230편이었지만, 정제과정 이후 선별된 기록 보존 연구 논문은 463편으로 전체 논문의 7.46%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6,230편의 논문 중 최종 463편의 논문을 연구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표 3] 국내 학술지 6종 논문 간행 현황 및 기록 보존 관련 논문 간행 현황

구간 학술지명	제1구간 (2000~2007)			제2구간 (2008~2014)			제3구간 (2015~2021)			전 구간 (2000~2021)		
	전체 논문 (편)	기록 보존 논문 (편)	비율 (%)	전체 논문 (편)	기록 보존 논문 (편)	비율 (%)	전체 논문 (편)	기록 보존 논문 (편)	비율 (%)	전체 논문 (편)	기록 보존 논문 (편)	비율 (%)
기록학연구	119	34	28.6	168	75	44.7	228	65	28.5	515	174	33.8
한국기록관리 학회지	114	40	35.1	164	52	31.7	265	69	26.0	543	161	29.7
정보관리 학회지	430	13	3.0	466	13	2.8	359	14	3.9	1,255	40	3.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64	9	1.9	694	8	1.2	399	12	3.0	1,557	29	1.9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463	14	3.0	565	7	1.2	366	7	1.9	1,394	28	2.0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191	7	3.7	438	9	2.1	310	15	4.8	939	31	3.3
합계	1,787	117	6.6	2,495	164	6.6	1,927	182	9.4	6,203	463	7.5

구간별로 보았을 때, 전체 연구 논문 중 기록 보존 연구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1구간(2000~2007)에서는 기록관리학·문헌정보학 분야 국내 학술지 6종에서 발표된 1,787편 중 117편(6.6%)이 기록 보존 연구였으며, 제2구간(2008~2014)에서는 2,495편 중 164편(6.6%), 제3구간(2015~2021)에서는 1,927편 중 182편(9.4%)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 보존 연구에 대한 기록관리학·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의 관

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내 6종 학술지의 기록 보존 논문 출판 비율(%)

학술지별로 보았을 때, 전 구간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에서 기록 보존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발표된 전체 515편의 연구논문 중 174편을 차지하는 33.8%로 ‘기록학연구’ 학술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 543편 중 161편을 차지하는 29.7%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서는 전 구간에서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939편 중 31편인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보관리학회지’가 1,255편 중 40편인 3.2%,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394편 중 28편인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1,557편 중 29편인 1.9% 순으로 나타났다.

4.1.2 연구자 생산성 분포

본 연구에서는 기록 보존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 294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정보를 수집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 생산성 분포를 조사하였다. 먼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463편의 기록 보존 연구를 발표한 294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별 논문 발행 수, 공동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등 연구자 특성 정보를 수집하고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자 생산성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기록 보존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연구자는 15회로 1명이며, 다음으로 연구를 10회를 발표한 연구자는 1명, 8회 발표한 연구자는 1명이다. 2회 발표한 연구자는 전체 중 약 14.53%를 차지하는 43명이다. 전체의 연구자 수의 대부분인 76.01%를 차지하는 225명의 연구자는 기록 보존 연구를 단 1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 구간(2000~2021)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 분포

연구 논문(편)	연구자(명)	비율(%)
15	1	0.34
10	1	0.34
8	1	0.34
7	4	1.35
6	5	1.69
5	4	1.35
4	5	1.69
3	7	2.36
2	43	14.53
1	225	76.01
합계	294	100.00

전 구간(2000~2021)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 분석을 통해 연구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자를 파악하였다([표 5] 참조). 기록 보존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한 연구자는 ‘설문원’으로, 15편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이소연(10편)’, ‘임진희(8편)’, ‘김유승(7편)’, ‘이경용(7편)’, ‘이승일(7편)’, ‘현문수(7편)’ 등의 연구자가 상위 순위의 연구자로 나타났다.

[표 5] 전 구간(2000~2021)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3회 이상)

순위	연구자명	연구 논문 (편)	순위	연구자명	연구 논문 (편)	순위	연구자명	연구 논문 (편)
1	설문원	15	8	서은경	6	17	이영학	4
2	이소연	10	8	서혜란	6	22	김덕목	3
3	임진희	8	13	김장환	5	22	노명환	3
4	김유승	7	13	송병호	5	22	백재은	3
4	이경용	7	13	이미영	5	22	신동희	3
4	이승일	7	13	한희정	5	22	이상민	3
4	현문수	7	17	곽건홍	4	22	천권주	3
8	김명훈	6	17	김상호	4	22	황진현	3
8	김지현	6	17	이경남	4			
8	김희정	6	17	이승억	4			

시간에 따른 국내 연구자의 기록 보존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제1구간(2000~2007), 제2구간(2008~2014), 제3구간(2015~2021)으로 나누어 구간별 연구자 분포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6] 참조).

제1구간에서는 ‘서혜란(6편)’이, 제2구간에서는 ‘설문원(8편)’이, 제3구간에서는 ‘설문원(7편)’이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구간 중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설문원(15편)’은 제1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 생산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제2, 3구간에서는 연구 생산성 상위

연구자에 속하였다. 제1, 2, 3구간을 비교할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정 연구자의 연구 편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기록 보존 분야의 연구 영역 활성화 및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의 동일 분야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구간별 연구자 연구 생산성 비교(구간별 3회, 전 구간 5회 이상)

구간 연번	제1구간 (2000~2007)		제2구간 (2008~2014)		제3구간 (2015~2021)		전 구간 (2000~2021)	
	연구자 (명)	연구 논문 (편)	연구자 (명)	연구 논문 (편)	연구자 (명)	연구 논문 (편)	연구자 (명)	연구 논문 (편)
1	서혜란	6	설문원	8	설문원	7	설문원	15
2	서은경	5	김유승	6	이경용	5	이소연	10
3	김상호	4	이소연	6	한희정	5	임진희	8
4	김희정	3	이승일	5	김장환	3	김유승	7
5	이상민	3	임진희	5	이미영	3	이경용	7
6			김명훈	4	현문수	3	이승일	7
7			김지현	4			현문수	7
8			이영학	4			김명훈	6
9			곽건홍	3			김지현	6
10			김희정	3			김희정	6
11			송병호	3			서은경	6
12			현문수	3			서혜란	6
13							김장환	5
14							송병호	5
15							이미영	5
16							한희정	5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록 보존 연구의 공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 연구자 및 공동 연구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공동연구자란, 하나의 연구 논문을 함께 저술한 2인 이상의 연구자들을 의미한다. 기록 보존 연구의 공동 연구자 현황을 분석하여 구간별 연구 현황을 파악하였다([표 7] 참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기록 보존 연구는 단일 연구자인 경우가 265편(57.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명의 저자가 121편(26.13%), 3명의 저자 연구는 37편(7.99%)이었다. 그 외 4명 이상의 저자의 공동 연구는 40편(8.64%)이었다.

[표 7] 구간별 단일 연구자 및 공동 연구자 현황

구간 연구자 수	제1구간 (2000~2007)		제2구간 (2008~2014)		제3구간 (2015~2021)		전 구간 (2000~2021)	
	연구 논문 (편)	비율 (%)	연구 논문 (편)	비율 (%)	연구 논문 (편)	비율 (%)	연구 논문 (편)	비율 (%)
1	97	82.91	92	56.10	76	41.76	265	57.24
2	12	10.26	46	28.05	63	34.62	121	26.13
3	4	3.42	15	9.15	18	9.89	37	7.99
4	1	0.85	8	4.88	17	9.34	26	5.62
5	2	1.71	1	0.61	6	3.30	9	1.94
6	0	0.00	0	0.00	2	1.10	2	0.43
7	0	0.00	2	1.22	0	0.00	2	0.43
8	0	0.00	0	0.00	0	0.00	0	0.00
9	1	0.85	0	0.00	0	0.00	1	0.22

구간별 기록 보존 연구의 평균 연구자 수를 확인하였을 때, 전 구간의 평균 연구자 수는 1.73명이었다([표 8] 참조). 제1구간의 평균 연구자 수는 1.34명, 제2구간은 1.70명, 제3구간은 2.01명으로 나타났다. 기록 보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간별 평균 연구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기록 보존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가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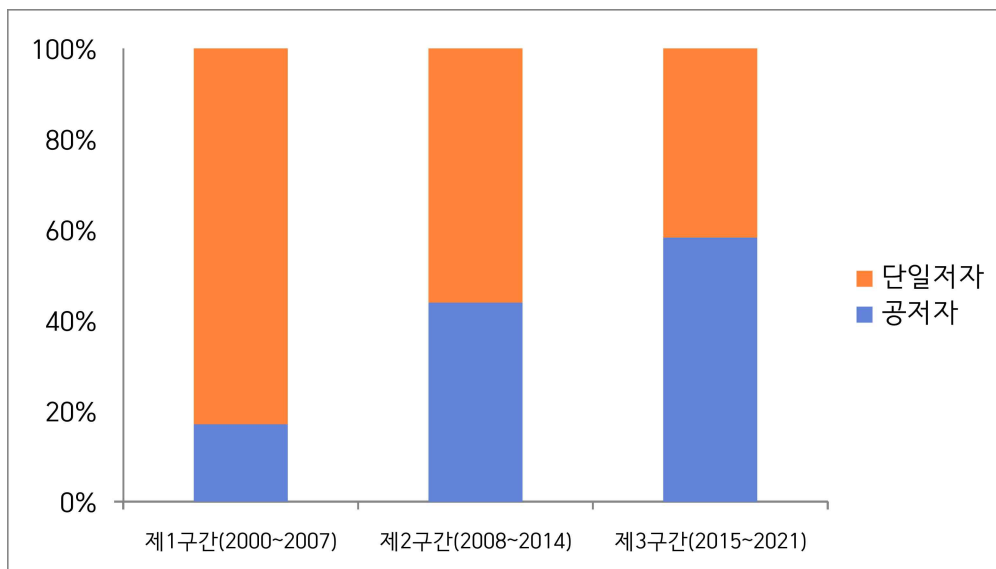
[표 8] 구간별 평균 연구자 수

	제1구간 (2000~2007)	제2구간 (2008~2014)	제3구간 (2015~2021)	전 구간 (2000~2021)
연구 논문(편)	117	164	182	463
연구자(명)	156	280	366	802
평균 연구자(명)	1.34	1.7	2.01	1.73

[그림 3]은 구간별 연구 형태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기록 보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독 연구는 점차 감소하고 공동 연구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제1구간에서 단일 연구자의 연구 논문 비율은 82.91%, 공동 연구자의 연구 논문 비율은 17.09%로 단일 연구자의 연구 논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2구간에서 단일 연구자 연구 논문 비율은 56.1%, 공동 연구자 연구 논문 비율은 43.9%로 제1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공동 연구자의 연구 논문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3구간에서는 단일 연구자의 연구 논문 비율이 41.76%, 공동 연구자의 연구 논문 비율이 58.24%로 연구자의 단독 연구보다 공동 연구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전 학문 분야에서 공동저술을 통한 연구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윤혜원, 2020). 공동저술 논문의 비중이 자연과학 및 의학 분야의 경우 1900년 13%에서 2011년 93%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1900년 3%에서 2011년 62%로 크게 증가했다(Larivière et al., 2015). 인문사회과학 중심으로 학문별 예를 들면, 사회학 분야, 무역학, 관광학, 행정학, 교육행정학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동연구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oody, 2004; 강동준, 이길남, 2015; 박경열, 2018; 이민호, 2017; 김한길, 2015). 기록 보존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공동 연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전 학문 분야의 일반

적인 연구 동향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림 3] 구간별 연구 형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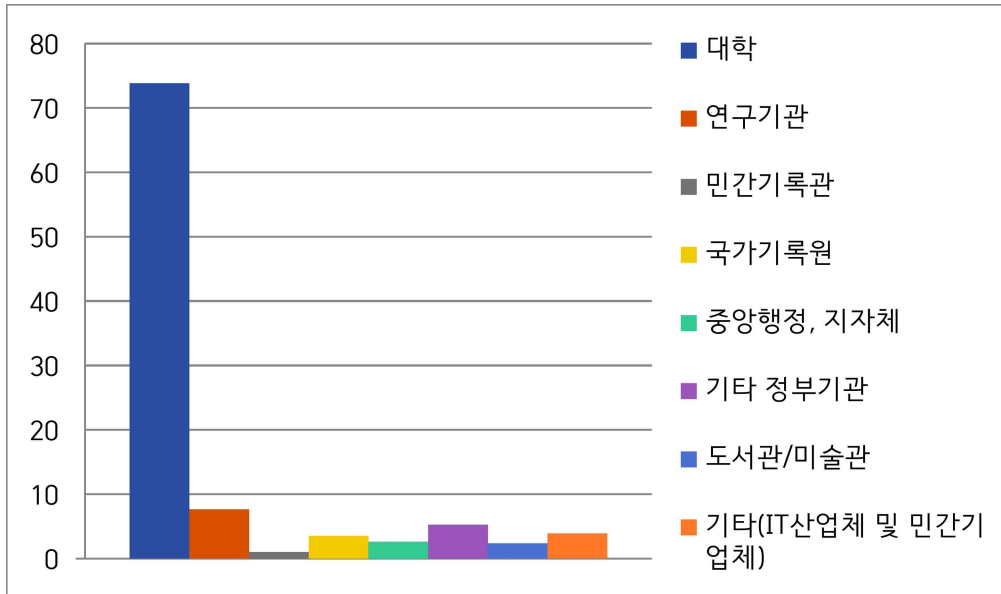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기록 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의 소속기관을 특성에 따라 크게 8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8가지 영역은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록관’, ‘국가기록원’, ‘중앙행정, 지자체’, ‘기타 정부기관’, ‘도서관/미술관’, ‘기타(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이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기록 보존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기관별 분포를 보면, ‘대학’이 592명(73.82%)로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은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같은 사단법인 연구기관과 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로, 61명(7.61%)의 생산성 분포를 보였다. ‘민간기록관’은 4.16기억저장소와 같은 민간기록관리기관과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와 같은 대학부설 기록관, 몽골국가기록원과 같은 국외기록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8명(1.00%)의 생산성 분포를 보였다. ‘국가기록원’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 소속된 연구자 28명(3.49%)이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중앙행정, 지자체’는 21명(2.62%)의 생

산성 분포를 보였다. ‘기타 정부기관’은 준정부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42명(5.24%)의 생산성 분포를 보였다. ‘도서관/미술관’은 국회도서관과 특수도서관, 대학부설도서관, 미술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포함하며, 19명(2.37%)의 생산성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한국 문헌정보기술(주), (주)세미콘네트웍스 등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IT산업체 및 출판사와 같은 민간기업체를 포함하며, 31명(3.87%)의 연구자 생산성 분포를 보였다. 연구자 소속기관별 생산성 분포는 ‘대학’, ‘연구기관’, ‘기타 정부기관’, ‘기타(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 ‘국가기록원’, ‘중앙행정, 지자체’, ‘도서관/미술관’, ‘민간기록관’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그림 4] 참조).

[표 9] 전 구간(2000~2021) 연구자 소속기관별 분포

소속기관	연구자(명)	비율(%)
대학	592	73.82
연구기관	61	7.61
민간기록관	8	1.00
국가기록원	28	3.49
중앙행정, 지자체	21	2.62
기타 정부기관	42	5.24
도서관/미술관	19	2.37
기타(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	31	3.87
합계	802	100.00



[그림 4] 전 구간(2000~2021) 연구자 소속기관별 비율(%)

[표 10] 구간별 연구자 소속기관별 분포

소속기관	제1구간 (2000~2007)	제2구간 (2008~2014)	제3구간 (2015~2021)	전 구간 (2000~2021)
대학	99	210	283	592
연구기관	17	25	19	61
민간기록관	1	5	2	8
국가기록원	5	5	18	28
중앙행정, 지자체	3	5	13	21
기타 정부기관	25	9	8	42
도서관/미술관	3	6	10	19
기타(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	3	15	13	31
합계	156	280	366	802

다음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기록 보존 연구를 발표한 단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의 소속기관별 분포를 비교하였다([표 11] 참조). 단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연구자의 소속기관은 ‘대학’이다. ‘대학’ 소속 단일 연구자는 179명(67.55%), ‘대학’ 소속 공동연구자는 413명(76.9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록 보존 연구는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 모두 ‘대학’에서 가장 많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표 11] 단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의 소속기관별 분포 비교

소속기관 \ 연구자유형	단일 연구자		공동 연구자	
	연구자 (명)	비율 (%)	연구자 (명)	비율 (%)
대학	179	67.55	413	76.91
연구기관	21	7.92	40	7.45
민간기록관	6	2.26	2	0.37
국가기록원	14	5.28	14	2.61
중앙행정, 지자체	14	5.28	7	1.30
정부기관 기타	19	7.17	23	4.28
도서관/미술관	6	2.26	13	2.42
기타(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	6	2.26	25	4.66
합계	265	100.00	537	100.00

단일 연구자가 공동 연구자보다 더 많이 나타난 소속기관은 ‘민간기록관’과 ‘중앙행정, 지자체’이다. ‘민간기록관’에서는 단일 연구자가 6명

(2.26%), 공동 연구자가 2명(0.37%)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 지자체’에서는 단일 연구자가 14명(5.28%), 공동연구자가 7명(1.30%)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 연구자가 단일 연구자보다 더 많이 나타난 소속기관은 ‘대학’과 ‘기타’이다. ‘대학’에서는 단일 연구자가 179명(67.55%), 공동 연구자가 413명(76.91%)으로 나타났다. 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와 같은 ‘기타’에서는 단일 연구자가 6명(2.26%), 공동 연구자가 25명(4.66%)으로 나타났다. 단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의 소속기관 비율이 비슷했던 기관은 ‘연구기관’과 ‘도서관/미술관’이다. ‘연구기관’ 영역에서는 단일 연구자가 21명(7.92%), 공동 연구자가 40명(7.45%)을 차지하였다. ‘도서관/미술관’ 영역에서는 단일 연구자가 6명(2.26%), 공동 연구자가 13명(2.42%)을 차지하였다. 단, ‘연구기관’과 ‘도서관/미술관’은 단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의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공동 연구자의 분포가 더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공동 연구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단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의 연구자 수가 비슷했던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정부기관 기타’로 나타났지만, 연구 비율은 단일 연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록 보존 연구에서 ‘민간기록관’과 ‘중앙행정, 지자체’의 연구자는 공동 연구보다 단독 연구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과 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와 같은 ‘기타’ 영역은 단독 연구보다 공동 연구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3 주제 키워드 빈도분석

본 연구는 국내 기록 보존 연구의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하여 주제 영역별 분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내 논문 총 463편에서 수집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키워드는 연구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키워드를 부여하지 않은 연구는 표제와 초록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키워드를 부여하였다. 이후 앞의 연구 절차에서 밝힌 것과 같이 키워드 정제과정을 거쳐 각 연구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4.1.3.1 주제 키워드 출현 빈도

국내 총 463편의 연구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수는 2,278개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파악된 2,278개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해당 단어의 수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12] 참조). 국내 기록 보존 연구에 출현한 고유 단어 수는 1,425개이며, 각 단어의 출현 빈도는 가장 높은 것이 32회, 가장 낮은 것이 1회임을 확인하였다. 전 구간(2000~2021)에서 등장한 키워드의 81.40%는 1회 출현하였으며, 극소수의 키워드가 여러 번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단어출현 빈도의 역함수 법칙을 보여 준다.

[표 12] 전 구간(2000~2021) 주제 키워드 출현 빈도 분포

출현 빈도(회)	단어(개)	비율(%)	출현 빈도(회)	단어(개)	비율(%)
32	1	0.07	12	3	0.21
30	1	0.07	11	2	0.14
27	1	0.07	9	3	0.21
24	1	0.07	8	6	0.42
21	1	0.07	7	4	0.28
20	2	0.14	6	6	0.42
19	2	0.14	5	14	0.98
16	1	0.07	4	24	1.68
15	3	0.21	3	57	4.00
14	2	0.14	2	129	9.05
13	2	0.14	1	1,160	81.40
계				1,425	100.00

국내 전 구간 주제 키워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출현한 키워드는 ‘전자기록(32회)’, ‘장기보존(30회)’, ‘디지털보존(27회)’, ‘평가(24회)’ 순

이다. 다음으로 ‘기록정보서비스(21회)’, ‘OAIS참조모형(20회)’, ‘기록관(20회)’, ‘디지털아카이브(19회)’, ‘메타데이터(19회)’, ‘국회기록보존소(16회)’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표 13] 전 구간(2000~2021) 주제 키워드 출현 빈도(10회 이상)

순위	주제 키워드	빈도	순위	주제 키워드	빈도
1	전자기록	32	12	디지털 아카이빙	15
2	장기보존	30	13	이관	15
3	디지털보존	27	14	기록관리 시스템	14
4	평가	24	15	아카이브	14
5	기록정보 서비스	21	16	공공 기록물법	13
6	OAIS 참조모형	20	17	기록보존소	13
7	기록관	20	18	데이터세트	12
8	디지털 아카이브	19	19	디지털화	12
9	메타데이터	19	20	보존 메타데이터	12
10	국회기록 보존소	16	21	기록관리 기준표	11
11	국가기록원	15	22	아카이빙	11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는 빈도에 따라 문자의 크기를 결정함으로써 텍스트에서의 해당 키워드의 빈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서민구, 이웅균, 2019). 따라서 키워드 분석을 시각화하는 도구로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주제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그림 5]와 같이 전 구간(2000~2021)의 주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¹⁾를

[illegible]

다음으로 주제 키워드를 시계열 순으로 제1구간(2000~2007), 제2구간(2008~2014), 제3구간(2015~2021)으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수행하고 구간별 키워드 분포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13]참조).

제1구간(2000~2007)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디지털보존(13회)’이며, ‘디지털화(7회)’ 등 디지털 기록과 관련된 키워드의 출현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기록관리시스템(6회)’ 등의 키

- 35 -

워드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제1구간에서 디지털 정보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즉 아카이브를 위한 개념적 구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2구간(2008~2014)에는 앞선 제1구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9회)’, ‘국가기록원(8회)’ 등의 기관에서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과 디지털보존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구간(2015~2021)은 기록물의 종류 중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세트(8회)’ 등 연구 영역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간별 키워드 출현 빈도분석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내 기록보존 연구주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1구간에서는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는 실재와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는 데이터세트 등 세부적인 연구 진행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 구간별 주제 키워드 비교(구간별 5회, 전 구간 10회 이상)

구간 연번	제1구간 (2000~2007)		제2구간 (2008~2014)		제3구간 (2015~2021)		전 구간 (2000~2021)	
	주제 키워드	빈도	주제 키워드	빈도	주제 키워드	빈도	주제 키워드	빈도
1	디지털보존	13	전자기록	16	평가	12	전자기록	32
2	기록관	10	장기보존	13	장기보존	11	장기보존	30
3	전자기록	9	메타데이터	10	기록정보 서비스	10	디지털보존	27
4	OAIS참조 모형	8	국회 기록보존소	9	기록관리기 준표	9	평가	24
5	기록보존소	7	디지털보존	9	데이터세트	8	기록정보 서비스	21
6	디지털화	7	국가기록원	8	디지털 아카이브	8	OAIS 참조모형	20
7	기록관리 시스템	6	기록정보 서비스	8	아카이브	8	기록관	20
8	장기보존	6	디지털 아카이브	8	OAIS 참조모형	7	디지털 아카이브	19
9	메타데이터	5	이관	8	전자기록	7	메타데이터	19

10	아카이빙	5	기록관	7	개인기록	6	국회 기록보존소	16
11	평가	5	디지털 아카이빙	7	국가기록원	6	국가기록원	15
12			평가	7	국회 기록보존소	6	디지털 아카이빙	15
13			공공 기록물법	6	공공기록물 법	5	이관	15
14			국가기록 관리체계	6	공동체 아카이브	5	기록관리 시스템	14
15			OAIS 참조모형	5	국회 기록관리	5	아카이브	14
16			기록보존소	5	기록관리 시스템	5	공공 기록물법	13
17			아카이빙	5	단위과제	5	기록보존소	13
18			연구데이터	5	디지털보존	5	데이터세트	12
19			웹 아카이빙	5	보존기간	5	보존 메타데이터	12
20					연구기록	5	디지털화	11
21							기록관리 기준표	11
22							아카이빙	11

4.1.3.2 키워드 주제영역별 분포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주제영역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전 구간 주제 키워드를 범주화하였다. 국내 총 463편의 논문에서 추출한 2,278개의 키워드를 살펴본 뒤, 성격이 비슷한 키워드를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이후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594회 등장한 55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주제 영역을 다음과 같이 8가지 주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록 보존 활동을 수행하는 절차(과정), 프로세스와 세부활동을 ‘절차/프로세스’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키워드에는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평가, 디지털아카이빙, 아카이빙, 웹 아카이빙, 이관, 디지털화, 데이터관리, 디지털 큐레이션, 폐기, 전자기록관리 등이 있다.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키워드는 170회 등장한 12개 키워드이다.

둘째, 기록 보존 활동에 활용되는 기술적 도구를 ‘기술, 도구’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키워드에는 메타데이터, 기능분류, 단위 과제, 분류/보존기간, 기록관리기준표, 보존포맷, 마이그레이션, 정보패키지, 보존메타데이터 등이 있다.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키워드는 84회 등장한 10개 키워드이다.

셋째, 기록 보존을 수행하는 기구나 조직을 ‘기관’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키워드에는 기록관, 국회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기록보존소, 국회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국 TNA 등이 있다.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키워드는 82회 등장한 7개 키워드이다.

넷째, 기록 보존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을 ‘기록물 유형’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키워드에는 전자기록, 구술기록, 연구데이터, 연구기록, 개인기록, 비밀기록, 종이기록물, 데이터세트 등이 있다.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키워드는 81회 등장한 8개 키워드이다.

다섯째, 법령, 표준, 지침 등 기록 보존과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법, 정책, 제도’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키워드에는 공공기록물법, 아키비스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국가기록관리체계, ISO 15489, 공개소프트웨어, OAIS참조모형, OASIS 등이 있다.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키워드는 70회 등장한 8개 키워드이다.

여섯째, 보존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S/W, H/W)과 구축된 리포지터리, 아카이브 시스템을 ‘시스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키워드에는 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공동체아카이브,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기관 리포지터리 등이 있다.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키워드는 67회 등장한 6개 키워드이다.

일곱째, 보존 기록을 활용한 서비스를 ‘서비스’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키워드에는 기록정보서비스, 확장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통합정보서비스 등이 있다.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키워드는 21회 등장한 1개 키워드이다.

마지막으로, 기록 보존과 관련된 원칙, 개념 등의 이론과 교육을 ‘이론,

교육'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키워드에는 진본성, 원질서존중의원칙,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계속교육 등이 있다.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키워드는 19회 등장한 3개 키워드이다.

[표 15] 8가지 키워드 주제영역

키워드 예시	내용	주제 영역	빈도(회)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평가, 디지털아카이빙, 아카이빙, 웹 아카이빙, 이관, 디지털화, 데이터관리, 디지털 큐레이션, 폐기, 전자기록관리 등	기록 보존 활동을 수행하는 절차(과정), 프로세스와 세부활동	절차/프로세스	170
메타데이터, 기능분류, 단위과제, 분류/보존기간, 기록관리기준표, 보존포맷, 마이그레이션, 정보패키지, 보존메타데이터 등	기록 보존 활동에 활용되는 기술적 도구	기술, 도구	84
기록관, 국회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기록보존소, 국회기록관리, 영국 TNA,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	기록 보존을 수행하는 기구나 조직	기관	82
전자기록, 구술기록, 연구데이터, 연구기록, 개인기록, 비밀기록, 종이기록물, 데이터세트 등	기록 보존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	기록물 유형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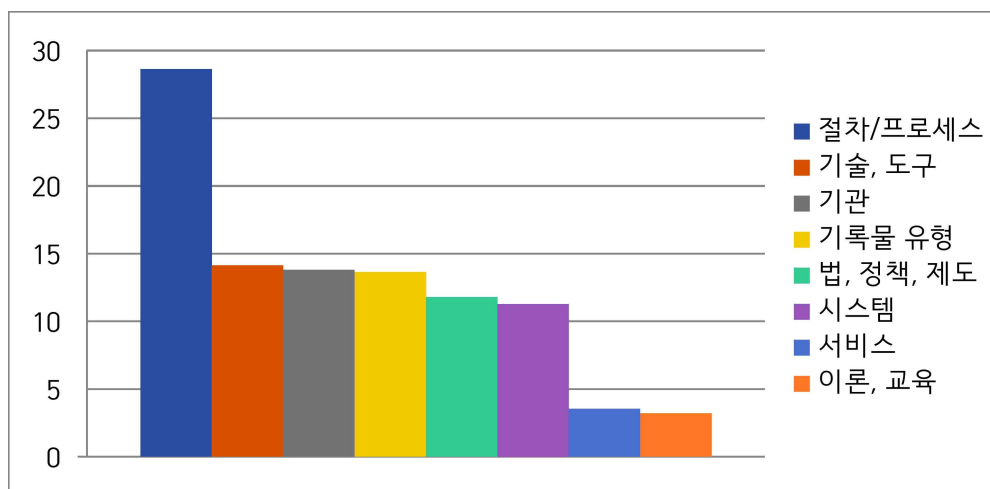
공공기록물법, 아키비스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국가기록관리체계, ISO15489, 공개소프트웨어, OAIS참조모형, OASIS 등	법령, 표준, 지침 등 기록 보존과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환경	법, 정책, 제도	70
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공동체아카이브,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기관 리포지터리 등	보존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S/W, H/W)과 구축된 리포지터리, 아카이브 시스템을 포함	시스템	67
기록정보서비스, 확장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통합정보서비스 등	보존 기록을 활용한 서비스	서비스	21
진본성, 원질서준중의원칙,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계속교육 등	기록 보존과 관련된 원칙, 개념 등의 이론과 교육	이론, 교육	19

전 구간(2000~2021)에서 8가지 주제영역의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절차/프로세스’는 기록 보존 활동을 수행하는 절차(과정), 프로세스와 세부활동을 뜻하는 영역으로 28.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해당 영역에서는 주로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보람, 2013;신동희, 2020;조애란, 2020). 다음으로는 ‘기술, 도구(14.14%)’, ‘기관(13.8%)’, ‘기록물 유형(13.64%)’, ‘법, 정책, 제도(11.78%)’, ‘시스템(11.28%)’, ‘서비스(3.5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영역은 3.20%로 나타난 ‘이론, 교육’ 영역이다. 해당 영역에서는 ‘진본성’, ‘원질서 준중의 원칙’, ‘교육과정’ 등 기록 보존과 관련된 원칙, 개념 등의 이론과 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

지현, 2018;이윤정, 정연경, 2020;정숙영, 김순희, 2021). 키워드 주제영역별 분포를 통해 ‘절차/프로세스 모델’ 영역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법, 정책 환경’ 11.78%, ‘시스템’ 11.28% 등 그 외 주제영역의 연구 분포는 비슷한 수준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6] 전 구간(2000~2021) 출현 빈도 5회 이상 키워드 주제영역별 분포

주제영역	빈도(회)	비율(%)
절차/프로세스	170	28.62
기술, 도구	84	14.14
기관	82	13.8
기록물 유형	81	13.64
법, 정책, 제도	70	11.78
시스템	67	11.28
서비스	21	3.54
이론, 교육	19	3.2
계	594	100.00



[그림 6] 전 구간(2000~2021) 출현 빈도 5회 이상 키워드 주제영역별 비율(%)

구간별로 주제영역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제1구간(2000~2007)에는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11개의 키워드가 81회 등장하였다. 제1구간에서는 ‘절차/프로세스’가 4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기관’이 20.99%, ‘기록물 유형’이 11.11%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와 ‘이론, 교육’ 영역 키워드는 제1구간에서 5회 미만으로 등장하여, 0.00%로 나타났다. 제1구간 내에서 ‘절차/프로세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에는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 장기보존, 아카이빙 등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기초 절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구간(2008~2014)에는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19개의 키워드가 147회 등장하였다. 제2구간에서는 ‘절차/프로세스’가 6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기관’이 35.80%, ‘기록물 유형’이 25.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론, 교육’ 영역 키워드는 제2구간에서 5회 미만으로 등장하여, 0.00%로 나타났다. 제2구간의 주제영역별 분포는 제1구간과 매우 흡사한 순서로 나타났다. 제2구간에서는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절차/프로세스’ 영역과 ‘기관’ 영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관련 키워드는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이관과 국가기록원, 기록관, 기록보존소 등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 제2구간에서는 제1구간에 비해 ‘절차/프로세스’ 영역 중 이관과 평가 관련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2구간에서는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이관하고, 평가하는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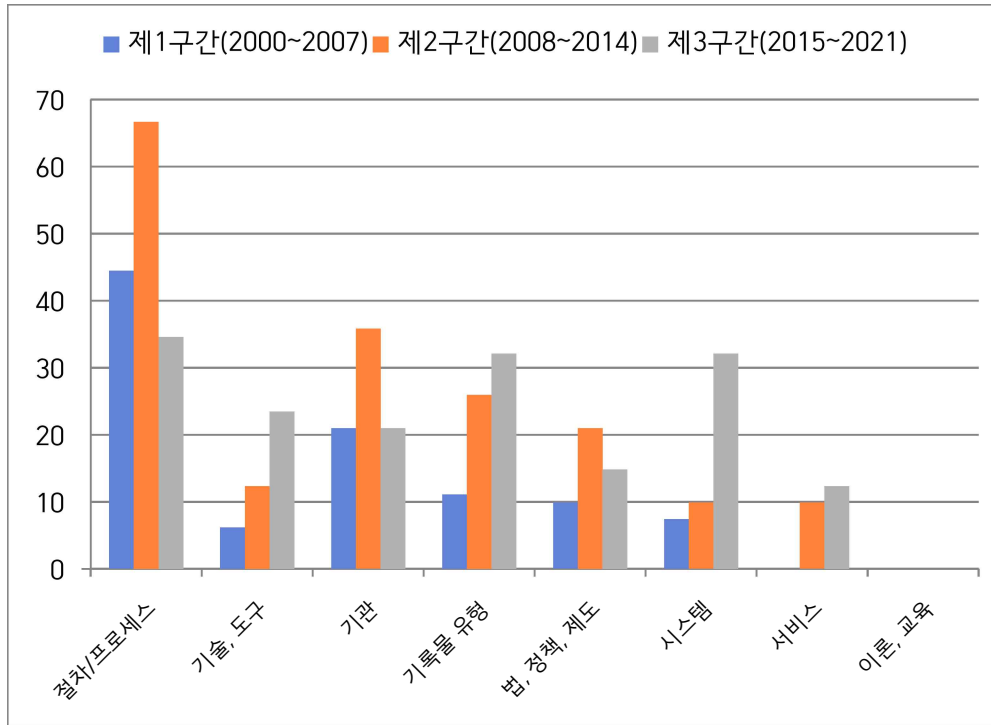
제3구간(2000~2021)에는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20개의 키워드가 138개 등장하였다. 제3구간에서는 ‘절차/프로세스’가 34.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기록물 유형’이 32.10%, ‘시스템’이 32.10% 순으로 나타났다. 제3구간에서도 ‘이론, 교육’ 영역 키워드는 5회 미만으로 등장하여, 0.00%로 나타났다. 제3구간에서는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시스템’ 영역의 분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영역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공동체아카이브,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주제 키워드가 포함된다. 특별히 다른 구간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키워

드는 공동체 아카이브로, 3구간의 주제영역이 다양하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록물 유형’ 영역이 구간별로 점차 증가하여 제3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기록물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기록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국내 기록 보존 연구에서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전 구간과 각 구간별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영역은 ‘절차/프로세스’였다. 또한, 전 구간과 각 구간별로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영역은 ‘이론, 교육’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7] 구간별 출현 빈도 5회 이상 키워드 주제영역별 분포

구간 주제영역	제1구간 (2000~2007)		제2구간 (2008~2014)		제3구간 (2015~2021)		전 구간 (2000~2021)	
	빈도 (회)	비율 (%)	빈도 (회)	비율 (%)	빈도 (회)	비율 (%)	빈도 (회)	비율 (%)
절차/프로세스	36	44.44	54	66.67	28	34.57	170	28.62
기술, 도구	5	6.17	10	12.35	19	23.46	84	14.14
기관	17	20.99	29	35.80	17	20.99	82	13.8
기록물 유형	9	11.11	21	25.93	26	32.10	81	13.64
법, 정책, 제도	8	9.88	17	20.99	12	14.81	70	11.78
시스템	6	7.41	8	9.88	26	32.10	67	11.28
서비스	0	0.00	8	9.88	10	12.35	21	3.54
이론, 교육	0	0.00	0	0.00	0	0.00	19	3.2
합계	81	100.00	147	100.00	138	100.00	594	100.00



[그림 7] 구간별 출현 빈도 5회 이상 키워드 주제영역별 비율(%)

4.2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록 보존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Miner V.4를 활용하였다.

4.2.1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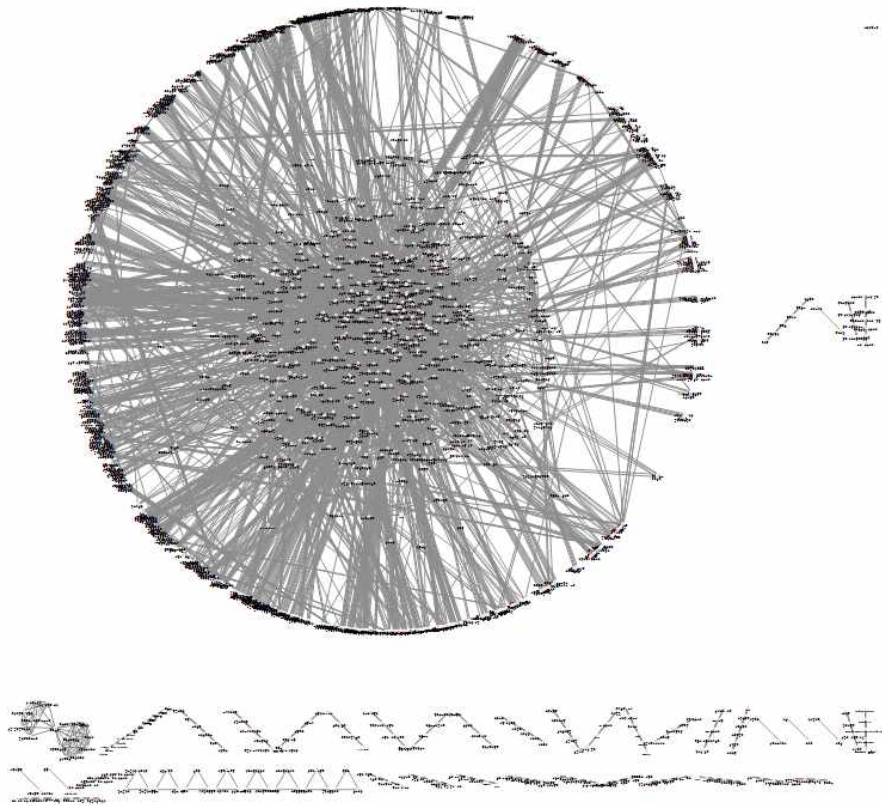
네트워크(Network)는 사물이나 사람들을 그물처럼 서로 연결하여 다양한 유형의 현실세계나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이다(이수상, 2012). 이때 행위자를 나타내는 노드(node)와 그들의 관계를 링크(link)로 나타낸 것을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라고 한다(김희섭, 강보라, 2018). 이는 관계데이터로서 개체 간의 연결구조

와 특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별적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통계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곽기영, 2017). 이중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는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로 표현되는 네트워크로 동시에 언급된 빈도가 높을수록 밀접한 관계로 해석하며 이와 같은 관계가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김희섭, 강보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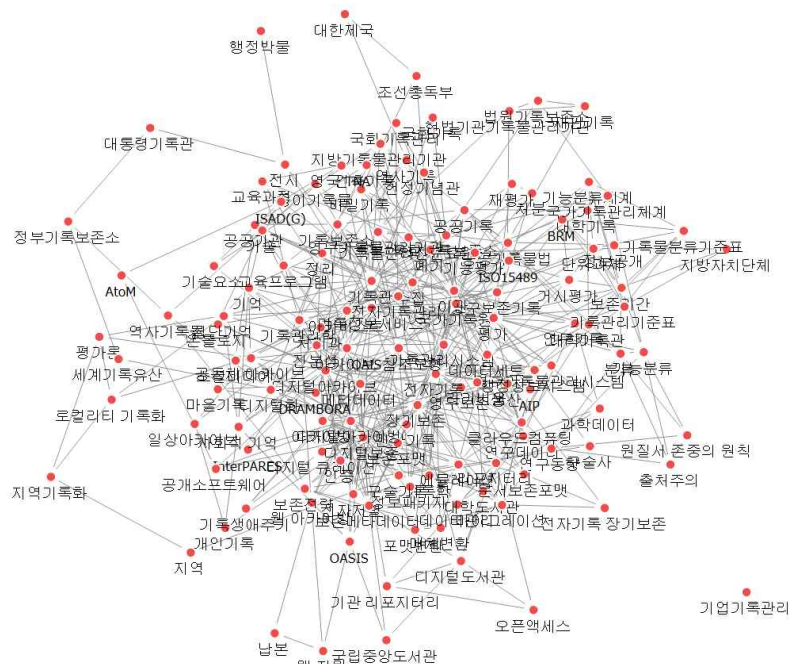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전 구간(2000~2021)과 세 구간(2000~2007, 2008~2014, 2015~2021)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2.1.1 전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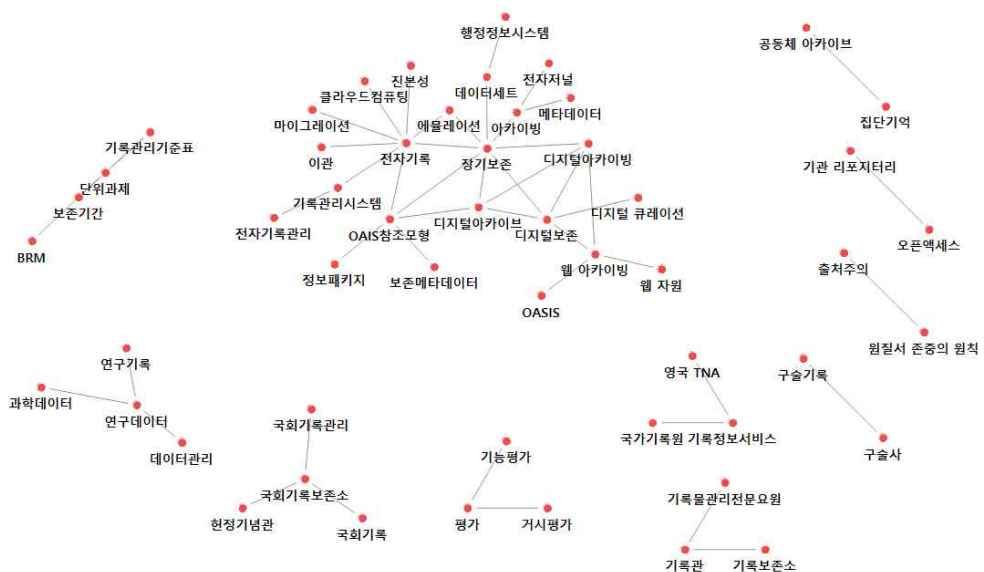
[그림 8]은 전체 키워드의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으로 2,278개의 노드와 4,125개의 링크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매우 복잡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논문 출현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제한한 860개의 키워드를 [그림 9]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연구에 동시 출현한 횟수가 3회 이상인 키워드로 [그림 10]과 같이 한 번 더 제한하였다. 그 결과 ‘장기보존’과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24개의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가장 크고 복잡하게 나타났으며, 4개의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3개, 3개의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3개, 2개의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4개로 총 11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그림 8] 전 구간(2000~2021)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9]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10]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좁은 세상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란 외견상으로 전혀 관련이 없거나 매우 멀리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들 사이에 실제로는 매우 짧은 링크에 의해 연결되는 현상을 일컫는다(이재열, 장덕진, 2005). 평균 값이 작을수록 좁은 세상에 가깝다 할 수 있으며, 높은 군집화 계수와 짧은 경로거리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이수상, 2012). 다음과 같이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 간의 최단 거리를 파악하였다([표 18] 참조). 기록 보존 연구 주제의 평균거리는 2.766이며 최대 6개의 키워드만 건너면 모든 주제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기록 보존 연구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 형태를 가지며, 주제영역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표 18] 전 구간(2000~2021) 키워드 간의 최단거리

측정	가치		
	측지선 거리	접근 가능 노드 (OUT)	접근 가능 노드 (IN)
평균경로	2.766	133.015	133.015
표준편차	0.866	11.448	11.448
최소경로	1	0	0
최대경로	6	134	134

다음으로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 중 가중치가 4회 이상 나타난 키워드 22쌍을 제시하였다([표 19] 참조). 여기서 가중치(Weight)란 키워드 노드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링크의 값을 의미한다.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이 15회로 가장 높은 동시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디지털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이 10회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국회기록보존소와 국회기록관리는 7회, 기록관리기준표와 보존기간은 6회로 나타났으며, 국가기록원과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과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리기준표와 단위과제, 장기보존과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와 OAIS참조모형, OAIS참조모형과 보존메타데이터, 데이터세트와 행정정보시스템은 5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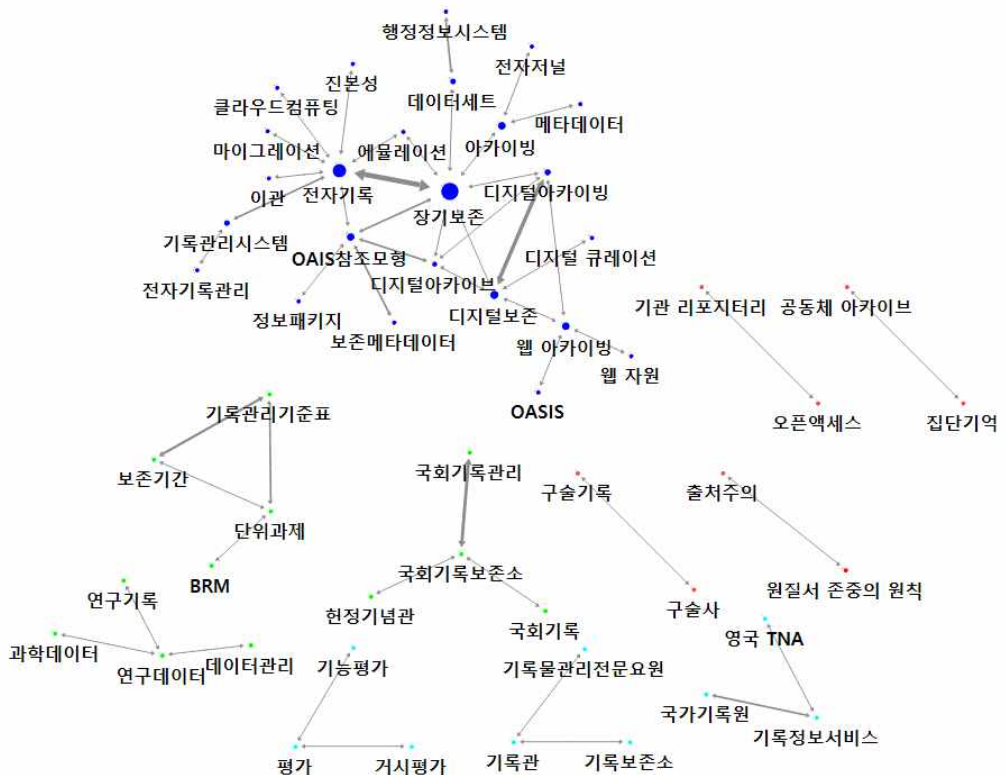
동시 출현 빈도를 보였다. 전자기록과 이관, 전자기록과 진본성,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 디지털보존과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보존과 웹아카이빙, 디지털보존과 디지털큐레이션, 장기보존과 디지털아카이브, 장기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 OASIS참조모형과 정보패키지는 4회로 나타났다.

[표 19]에 제시된 키워드 22쌍은 중복되는 키워드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가중치 4회 이상으로 나타난 상위 키워드쌍은 OASIS참조모형,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전자기록, 디지털아카이브, 기록관리기준표, 디지털아카이빙, 국가기록원, 국회기록관리,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시스템, 기록정보서비스, 단위과제, 데이터세트, 디지털 큐레이션, 보존기간, 보존메타데이터, 원질서 존중의 원칙, 웹 아카이빙, 이관, 정보패키지, 진본성, 출처주의, 행정정보시스템, 국회기록, 웹아카이빙, OASIS이다. 중복되는 키워드를 제외하면 총 27개의 키워드만 나타난다. 이 중 OASIS참조모형,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전자기록은 각 4회씩 중복하여 출현하였으며, 디지털 아카이브도 3회 중복 출현하였다. OASIS참조모형,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전자기록 등과 같이 동시 출현 빈도가 높으며, 다른 키워드와 함께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키워드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노드라는 것을 나타낸다. 전 구간(2000~2021)에서 수행된 기록 보존 연구에서 OASIS참조모형,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전자기록과 관련된 주제영역이 핵심 주제영역이며, 다른 주제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표 19] 전 구간(2000~2021)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4회 이상)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가중치
1	전자기록	장기보존	15
2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빙	10
3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관리	7
4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6
5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5
5	전자기록	기록관리시스템	5
5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5
5	장기보존	OAIS참조모형	5
5	디지털아카이브	OAIS참조모형	5
5	OAIS참조모형	보존메타데이터	5
5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5
12	전자기록	이관	4
12	전자기록	진본성	4
12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의 원칙	4
12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브	4
12	디지털보존	웹 아카이빙	4
12	디지털보존	디지털 큐레이션	4
12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브	4
12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4
12	OAIS참조모형	정보패키지	4
12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	4
12	웹 아카이빙	OASIS	4

중심성은 한 노드의 집중도를 말하며,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키워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연결성이 높을수록 노드 간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곽기영, 2017).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노드 크기는 크며 노드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링크는 가중치(Weight) 값이 클수록 굵게 표현된다. 이는 키워드 쌍이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을 [그림 11]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장기보존과 전자기록의 출현 빈도가 높아 노드가 크게 표현되었으며, 두 노드 간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다.



[그림 11]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전 구간의 연결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이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였으며,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전자기록’은 기록 보존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 유형 중 하나로, 전통적 종이 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로 생산환경에 변화가 생긴 오늘날 연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2003; 송병호, 2005). ‘장기보존’은 ‘전자기록’ 키워드와 함께 수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와 에플레이션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전자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이경남, 2006; 김명훈, 오명진, 이재홍, 임진희, 2013).

한편, 앞서 살펴본 [표 13]의 전 구간(2000~2021) 주제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과 비교하면, ‘웹 아카이빙’의 출현 빈도는 10회 미만이지만 연결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의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를 통해 ‘웹 아카이빙’은 ‘웹자원’, ‘OASIS’,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보존’ 등의 키워드와 연결되어있어 다른 주제에 접근하기 쉬운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0] 전 구간(2000~2021) 연결 중심 값(상위 19개)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1	전자기록	0.059259	8	국회기록보존소	0.022222
2	장기보존	0.059259	12	기록관리시스템	0.014815
3	디지털보존	0.037037	12	기록관	0.014815
3	OAIS참조모형	0.037037	12	기록관리기준표	0.014815
3	디지털아카이브	0.029630	12	보존기간	0.014815
3	웹아카이빙	0.029630	12	기록정보서비스	0.014815
3	디지털아카이빙	0.029630	12	평가	0.014815
8	아카이빙	0.022222	12	데이터세트	0.014815
8	단위과제	0.022222	12	에플레이션	0.014815
8	연구데이터	0.022222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양한 하위 주제들을 매개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주제로 확장이 가능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다(이수상, 2012). 즉,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노드의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지닌다(곽기영, 2017).

전 구간의 매개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장기보존’이 가장 높은 매개 중심 값을 가진 키워드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다음으로 ‘전자기록’, ‘디지털 보존’, ‘OAIS참조모형’, ‘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존’과 ‘전자기록’이 기록 보존 연구의 전 구간(2000~2021)에서 가장 확장성이 높은 주제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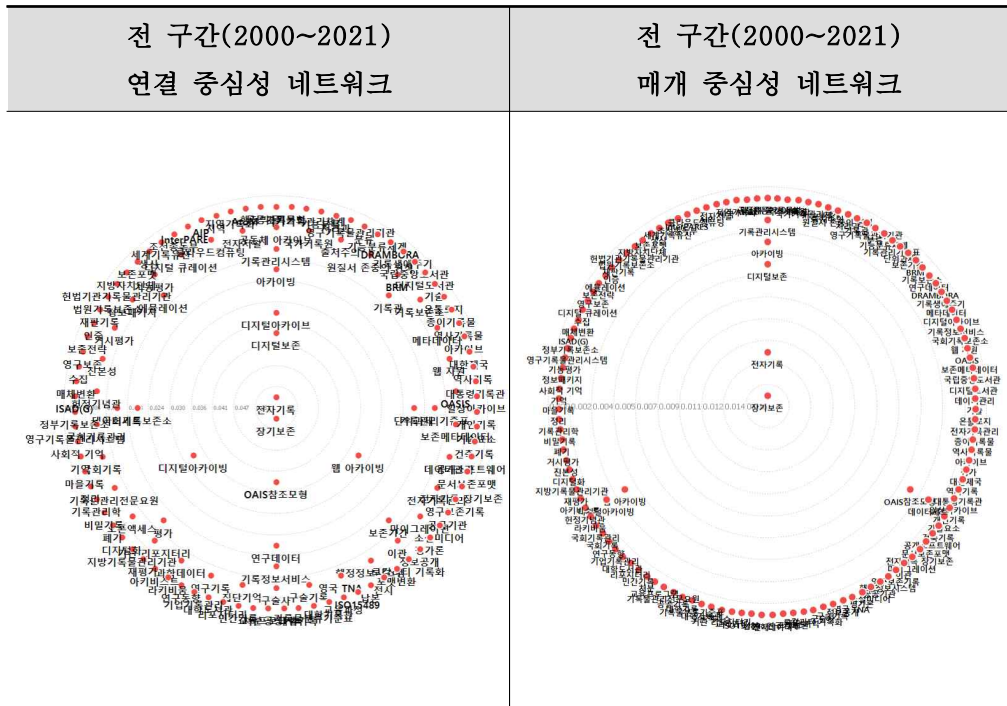
[표 21] 전 구간(2000~2021)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순위	키워드	매개 중심 값
1	장기보존	0.017579
2	전자기록	0.012991
3	디지털 보존	0.005417
4	OAIS참조모형	0.005141
5	아카이빙	0.004754

전 구간에서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를 활용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 시각화 결과를 비교하였다([그림 12] 참조). 전 구간 기록 보존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전자기록’, ‘장기 보존’,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에서는 ‘전자기록’, ‘장기보존’이 다른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개 중심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키워드는 빈도분석 수치와 연결 중심 값, 매개 중심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난 핵심 키워드이다. 즉, 다른 주제영역과 상대적으로 많이 연결되어있어 영향력이 높으며, 다른 주제영역의 중간매개 역할을 해주며 다른 주제로 확장성이 높은 중요한 주제 키워드이다. 따라서 기록 보존 연구 전 구간(2000~2021)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기록’과 ‘장기 보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빙’은 매개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키워드 간의 중개하는 정도는 낮지만 다른 키워드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2]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4.2.1.2 제1구간

제1구간(2000~2007) 동안 3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2회 이상 다른 키워드와 함께 동시 출현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13] 참조).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구조가 단조로운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노드가 연결되어있는 그룹은 ‘전자기록’과 ‘OAIS참조모형’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진본성’, ‘AIP’, ‘보존메타데이터’, ‘장기보존’, ‘아카이빙’, ‘전자저널’ 등 9개의 노드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디지털보존’을 중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빙’과 ‘웹 아카이빙’ 등 3개 노드로 구성된 그룹이 있으며, ‘기록관’과 ‘기록보존소’로 2개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진본성’, ‘AIP’, ‘전자저널’, ‘기록관’과 같은 5개의 고유한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OAIS참조모형’은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아 노드가 제1구간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다음으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의 노드가 크게 표현되었다. ‘디지털 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은 키워드의 출현 빈도는 낮지만, 키워드 간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다. 제1구간에서는 기록 보존 분야에 ‘OAIS참조모형’ 등을 중심으로 전자기록 보존에 관한 연구 주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희정, 2003;서은경, 2004;이경남, 2006).



[그림 13] 제1구간(2000~2007)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제1구간(2000~2007)에서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 쌍을 제시하였다([표 22] 참조). ‘디지털 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이 4회로 가장 높은 동시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자기록’과 ‘진본성’이 3회, ‘전자기록’과 ‘기록관리시스템’이 3회, ‘전자저널’과 ‘아카이빙’이 3회로 나타났다. ‘디지털 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이 주제 키워드 간 연결성이 가장 높았지만, 그 외 다른 주제 키워드와의 연결은 약하였다. ‘전자기록’은 다양한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으며 연결성도 높아 여러 차례 등장하였는데, 이는 ‘전자기록’ 주제 키워드가 제1구간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키워드인 것을 의미한다.

[표 22] 제1구간(2000~2007)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3회 이상)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가중치
1	디지털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4
2	전자기록	진본성	3
2	전자기록	기록관리시스템	3
2	전자저널	아카이빙	3

제1구간(2000~2007)의 연결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OAIS참조모형’이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표 23] 참조). 다음으로 ‘전자기록’이 두 번째로 연결 중심 값이 높았으며, ‘장기보존’, ‘디지털 보존’, ‘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OAIS참조모형’은 ‘전자기록’을 ‘장기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즉 ‘디지털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틀을 마련한 ISO 표준이다(한국기록학회, 2008). 제1구간에서 연결 중심 값이 높은 키워드는 ‘OAIS참조모형’을 중심으로 모두 주제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 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해 OAIS참조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조사하거나(홍재현, 2004), OAIS참조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김희정, 2003;김성겸, 2007)가 이루어졌다.

[표 23] 제1구간(2000~2007) 연결 중심 값(상위 14개)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1	OAIS참조모형	0.166667	6	기록관	0.041667
2	전자기록	0.125000	6	진본성	0.041667
3	장기보존	0.083333	6	보존메타데이터	0.041667
3	디지털보존	0.083333	6	기록관리시스템	0.041667

3	아카이빙	0.083333	6	디지털아카이빙	0.041667
6	기록보존소	0.041667	6	웹아카이빙	0.041667
6	전자저널	0.041667	6	AIP	0.041667

[표 24]는 제1구간(2000~2007)의 매개 중심 값을 나타낸 것으로 ‘OAIS참조모형’이 가장 높은 매개 중심 값을 가진 키워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매개 중심 값을 가진 키워드는 ‘전자기록’, ‘장기보존’, ‘아카이빙’, ‘디지털 보존’ 순이다. ‘OAIS참조모형’은 제1구간에서 독보적으로 매개 중심 값이 높은 키워드이며, 이는 기록 보존 연구의 초기에 ‘OAIS참조 모형’ 주제가 다른 주제와 중개역할을 하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표 13]의 전 구간(2000~2021) 주제 키워드 출현빈도 분석과 비교하면, ‘아카이빙’의 출현 빈도는 낮았으나 상대적으로 매개 중심성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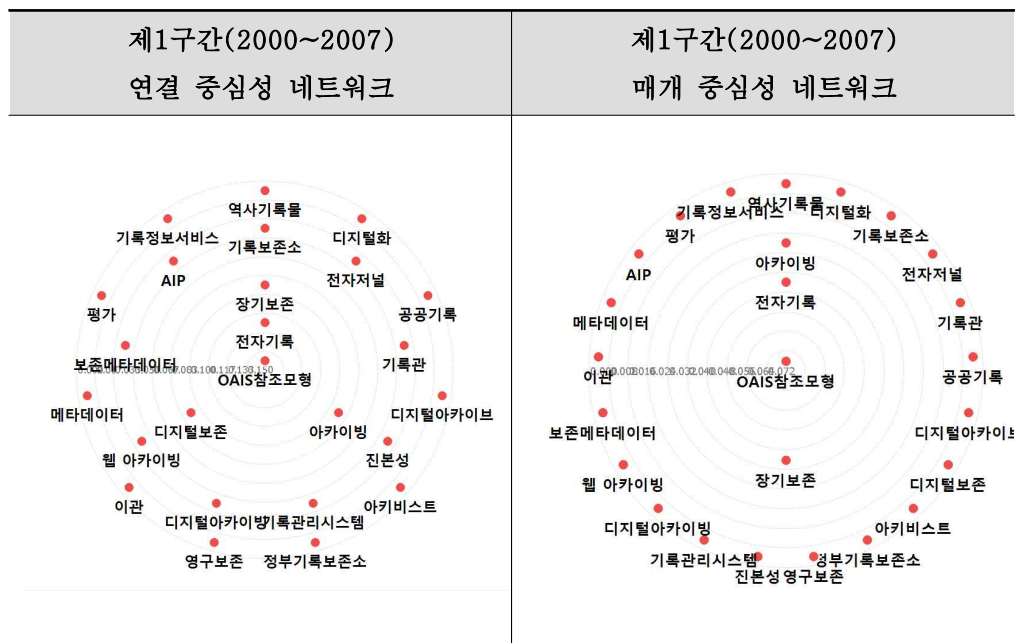
[표 24] 제1구간(2000~2007)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순위	키워드	매개 중심 값
1	OAIS참조모형	0.079710
2	전자기록	0.047101
3	장기보존	0.043478
4	아카이빙	0.025362
5	디지털 보존	0.003623

제1구간에서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를 활용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 시각화 결과를 비교하였다([그림 14] 참조). 제1구간 기록 보존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OAIS참조모형’,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OAIS참조모형’, ‘전자기록’, ‘장기보존’, ‘아카이빙’,

‘디지털 보존’ 등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동시에 높은 키워드가 여러 개 등장하였다. ‘OAIS참조모형’은 제1구간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키워드이다. 이 외에도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등의 키워드가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모두 높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즉, 기록 보존 연구의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과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등의 키워드가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핵심 주제 키워드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표 13]의 구간별 빈도분석의 결과로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즉 아카이브를 위한 개념적 구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받았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4] 제1구간(2000~2007) 3회 이상 출현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4.2.1.3 제2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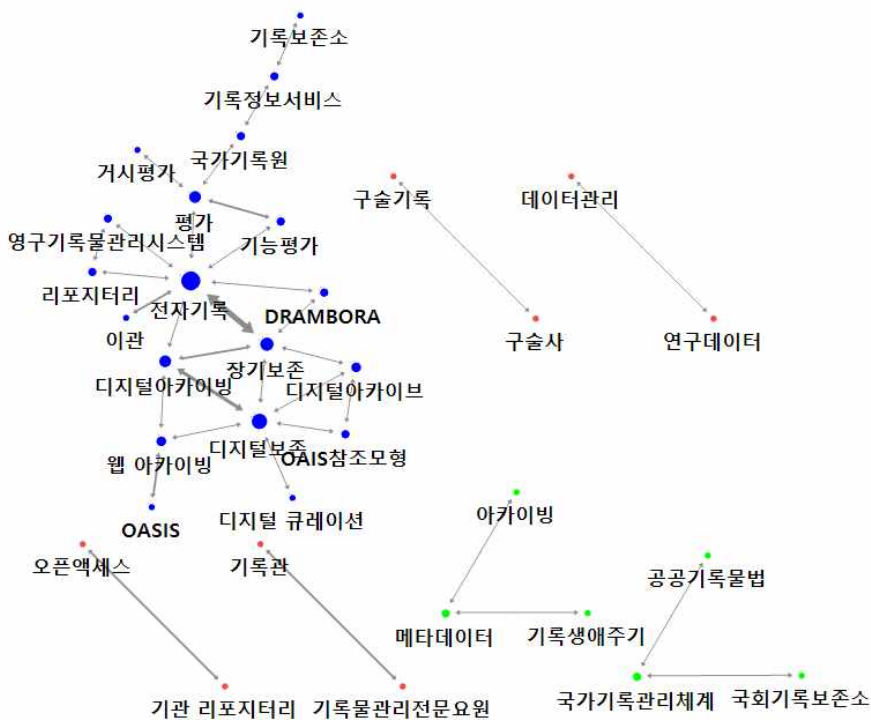
제2구간(2008~2014) 동안 3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동시 출현횟수도 3회 이상인 키워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그림 15]). 총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구조가 제1구간에 비하여 매우 복잡해졌으며 연결 그룹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자기록’의 출현 빈도가 높아 노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의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다. 해당 노드들이 속한 그룹이 가장 복잡하게 연결된 그룹인데, 총 19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구성을 이룬다. ‘기능평가’, ‘평가’, ‘거시평가’, ‘국가기록원’, ‘정보서비스’, ‘기록보존소’, ‘전자기록’,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리포지터리’, ‘이관’, ‘디지털아카이빙’, ‘웹 아카이빙’, ‘OASIS’, ‘DRAMBORA’,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브’, ‘OASIS참조모형’, ‘디지털 큐레이션’이 해당 그룹의 구성 노드이다. 그 외에는 3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이 2개, 2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이 4개 등장하였다. 3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기록생애주기’와 ‘아카이빙’이 연결된 그룹과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보존소’와 ‘공공기록물법’이 연결된 그룹이 있다. 2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에는 ‘오픈엑세스’와 ‘기관 리포지터리’,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구술기록’과 ‘구술사’, ‘데이터관리’와 ‘연구데이터’ 등이 있다.

제2구간에서는 ‘거시평가’, ‘기능평가’,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리포지터리’, ‘OASIS’, ‘DRAMBORA’, ‘디지털큐레이션’, ‘메타데이터’, ‘기록생애주기’, ‘공공기록물법’, ‘국가기록관리체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픈엑세스’, ‘구술기록’, ‘구술사’, ‘데이터관리’, ‘연구데이터’와 같은 18개의 고유한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제1구간과 동일하게 제2구간에서도 ‘전자기록’ 노드를 중심으로 여러 주제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OASIS참조모형’은 제2구간에서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의 연결성이 뚜렷

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디지털아카이빙’,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브’ 등의 주제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있어 큰 그룹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 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관계를 보였던 주제 키워드가 제2구간에서는 한 그룹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1구간의 가장 큰 그룹에서 나타났던 주제 키워드 ‘전자기록’, ‘장기보존’, ‘OAIS참조모형’과 제1구간의 두 번째 그룹에서 나타났던 ‘디지털아카이빙, 웹아카이빙, 디지털 보존’ 제1구간의 세 번째 그룹에서 나타났던 ‘기록보존소’를 제2구간의 가장 큰 그룹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제1구간의 두 번째 그룹이었던 ‘디지털 아카이빙’, ‘웹아카이빙’, ‘디지털보존’ 키워드는 그대로 제2구간의 첫 번째 그룹에 편입하여 ‘전자기록’, ‘장기보존’, ‘OAIS참조모형’과 직접 링크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그림 15] 제2구간(2008~2014)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제2구간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제 키워드 영역에는 ‘기록정보서비스’, ‘국가기록원’, ‘평가’, ‘거시평가’, ‘기능평가’,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리포지터리’, ‘이관’, ‘OASIS’, ‘DRAMBORA’,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큐레이션’, ‘메타데이터’, ‘기록생애주기’, ‘공공기록물법’, ‘국가기록관리체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픈엑세스’, ‘기관 리포지터리’, ‘구술기록’, ‘구술사’, ‘데이터관리’ 등이 있다. 특히 ‘평가’, ‘거시평가’, ‘기능평가’, ‘이관’, ‘데이터관리’, ‘디지털큐레이션’과 같은 기록 보존 활동을 수행하는 절차/프로세스 영역의 주제 키워드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였다.

제2구간(2008~2014)에서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 쌍을 제시하였다([표 25] 참조). 동시 출현 빈도 8회인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은 [그림 15]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듯이 가장 연결성이 높은 키워드이다. 다음으로는 ‘디지털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이 5회로 나타났다.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웹 아카이빙’과 ‘OASIS’, ‘이관’과 ‘전자기록’, ‘장기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 ‘오픈엑세스’와 ‘기관 리포지터리’, ‘평가’와 ‘기능평가’ 키워드는 가중치 3회로 연결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표 25] 제2구간(2008~2014)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3회 이상)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가중치
1	전자기록	장기보존	8
2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빙	5
3	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3
3	웹 아카이빙	OASIS	3
3	이관	전자기록	3
3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3
3	오픈엑세스	기관 리포지터리	3
3	평가	기능평가	3

제2구간(2008~2014)의 연결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전자기록’이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표 26] 참조). ‘디지털보존’이 두 번째로 연결 중심 값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평가’,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빙’,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정보서비스’, ‘국가기록관리체계’, ‘OAIS참조모형’, ‘국가기록원’, ‘메타데이터’, ‘기능평가’, ‘리포지터리’, ‘DRAMBORA’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제2구간(2008~2014) 연결 중심 값(상위 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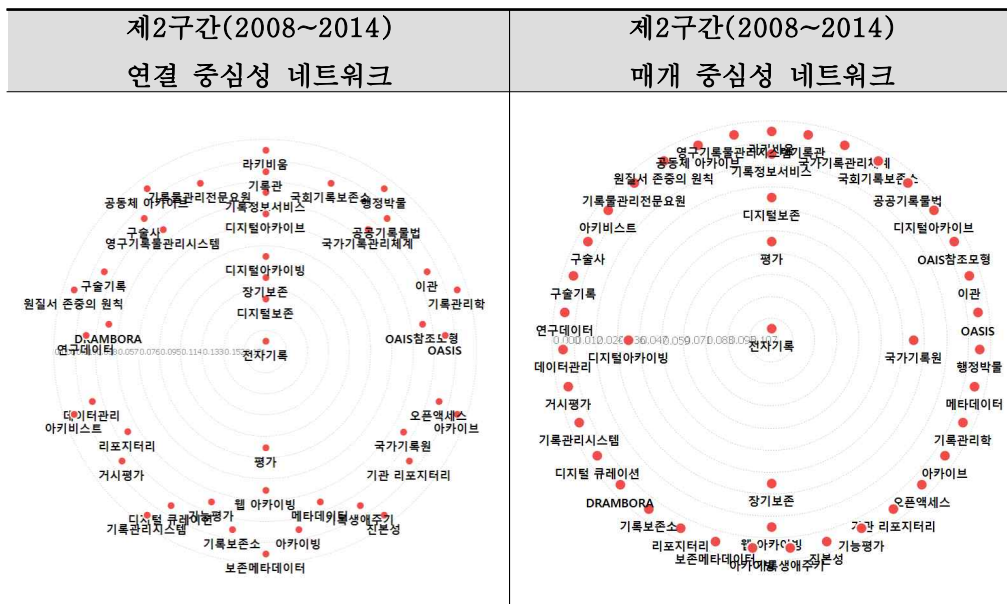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1	전자기록	0.190476	8	기록정보서비스	0.047619
2	디지털보존	0.142857	8	국가기록관리 체계	0.047619
3	장기보존	0.119048	8	OAIS참조모형	0.047619
4	디지털아카이빙	0.095238	8	국가기록원	0.047619
4	평가	0.095238	8	메타데이터	0.047619
6	디지털아카이브	0.071429	8	기능평가	0.047619
7	웹아카이빙	0.071429	8	리포지터리	0.047619
8	영구기록물 관리시스템	0.047619	8	DRAMBORA	0.047619

[표 27]은 제2구간(2008~2014)의 매개 중심 값을 나타낸 것으로 ‘전자기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가’, ‘디지털아카이빙’, ‘장기보존’, ‘국가기록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제2구간(2008~2014)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순위	키워드	매개 중심 값
1	전자기록	0.118550
2	평가	0.068525
3	디지털아카이빙	0.041425
4	장 기보존	0.038328
5	국가 기록원	0.037166

[그림 16]은 제2구간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를 활용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제2구간 기록 보존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전자기록’,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평가’,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은 ‘전자기록’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 ‘디지털아카이빙’, ‘장기보존’, ‘국가기록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제2구간(2008~2014) 3회 이상 출현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전자기록’ 주제 키워드는 제2구간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15]에서 ‘전자기록’은 ‘평가’, ‘기능평가’, ‘DRAMBORA’,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이관’, ‘리포지터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과 같은 8개의 키워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 해당 노드를 거치면 다른 노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은 기록 보존 연구의 제2구간에서 가장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 키워드는 출현 빈도가 높거나 연결 중심성이 높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왔다. [그림 15]의 네트워크를 볼 때 ‘국가기록원’ 키워드가 ‘기록정보서비스’와 ‘평가’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여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제2구간에서는 제1구간에서 이루어진 개념적 구조 틀을 마련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전자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히 ‘평가’, ‘거시평가’, ‘기능평가’, ‘이관’, ‘데이터관리’, 디지털큐레이션’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프로세스 영역의 주제가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었고, ‘DRAMBORA’와 같이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위험관리기법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4.2.1.4 제3구간

제1구간(2000~2007) 동안 3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2회 이상 다른 키워드와 함께 동시 출현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17] 참조). 19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 1개, 4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 1개, 2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 3개로 총 5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19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각 ‘장기보존’과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데이터세트’ 노드가 하나로 매개하며 큰 그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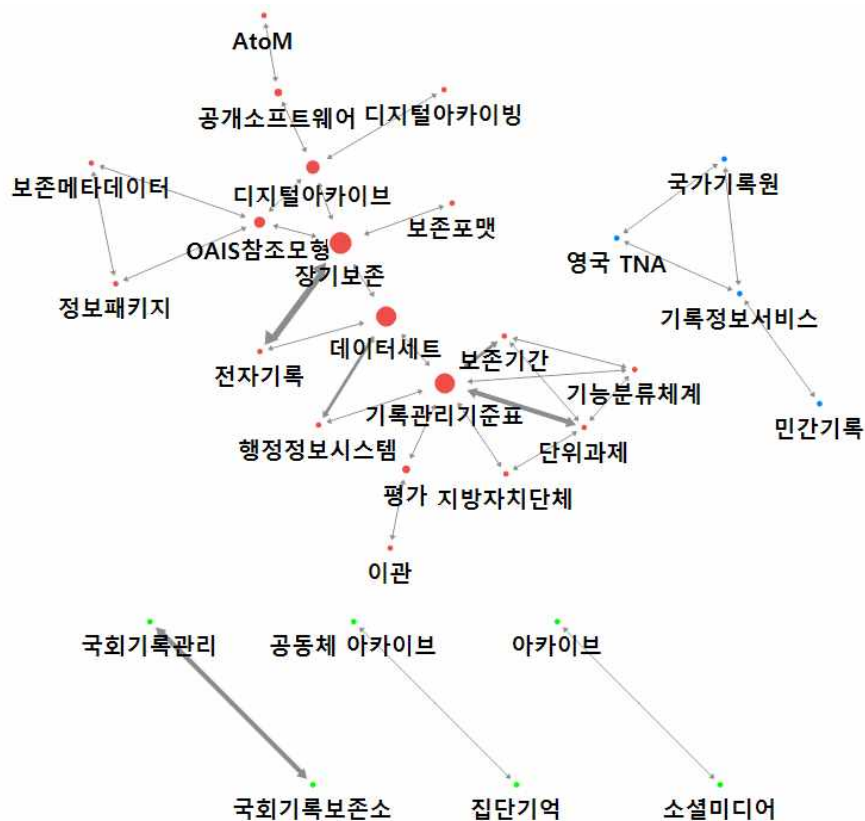
나타났다. 19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AtoM’, ‘공개소프트웨어’, ‘디지털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브’, ‘보존메타데이터’, ‘정보패키지’, ‘OAIS참조모형’, ‘장기보존’, ‘보존포맷’, ‘전자기록’,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기준표’, ‘평가’, ‘이관’, ‘보존기간’, ‘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 ‘지방자치단체’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국가기록원’, ‘영국 TNA’, ‘기록정보서비스’, ‘민간기록’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다. 2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국회기록관리’와 ‘국회기록보존소’, ‘공동체아카이브’와 ‘집단기억’, ‘아카이브’와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제3구간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AtoM’, ‘공개소프트웨어’, ‘정보패키지’, ‘보존포맷’,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 ‘지방자치단체’, ‘영국 TNA’, ‘민간기록’, ‘국회기록관리’, ‘국회기록보존소’, ‘공동체 아카이브’, ‘집단기억’, ‘아카이브’, ‘소셜미디어’와 같은 19개의 고유한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장기보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아 노드가 크게 나타났다. ‘전자기록’은 출현 빈도는 낮지만 ‘장기보존’과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다. ‘단위과제’도 출현 빈도가 낮지만 ‘기록관리기준표’와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으며, ‘보존기간’, ‘기능분류체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제 키워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구간에서는 제2구간의 가장 큰 그룹에서 나타났던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아카이브’, ‘OAIS참조모형’, ‘장기보존’, ‘전자기록’, ‘평가’, ‘이관’ 등의 키워드가 재등장하였다. 해당 주제 키워드는 제3구간에서도 가장 큰 그룹에서 나타났다. 그 중 ‘OAIS참조모형’은 ‘보존메타데이터’, ‘정보패키지’와 새롭게 연결되었고, ‘디지털아카이브’는 ‘공개소프트웨어’와 ‘AtoM’과 새롭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구간에서 가장 큰 그룹에 연결되어있던 ‘국가기록원’과 ‘기록정보서비스’ 노드는 제3구간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영국 TNA’와 ‘민간기록’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그림 17] 제3구간(2015~2021)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제3구간에서는 기록 보존 분야에 디지털 기록이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등 변화에 대한 대처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왕호성, 설문원, 2017;한희정, 윤성호, 오효정, 양동민, 2020;윤성호, 이정은, 양동민, 2021). 또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영역에서 보존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록에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귀영, 김지현, 2015;이정은, 이지원, 2017;김태영, 2019). ‘공동체 아카이브’, ‘집단기억’, ‘민간기록’ 등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가 등장함으로 연구 분야가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신동희, 김유승, 2016;설문원, 2021;신지원, 최상희, 2021).

제3구간(2015~2021)에서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 쌍을 제시하

였다([표 28] 참조). ‘장기보존’과 ‘전자기록’의 키워드가 6회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기록관리기준표’와 ‘단위과제’, ‘국회기록관리’와 ‘국회기록보존소’는 5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데이터세트’와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기준표’와 ‘보존기간’은 4회로 나타났다. ‘기록정보서비스’와 ‘국가기록원’, ‘데이터세트’와 ‘장기보존’, ‘보존기간’과 ‘단위과제’는 3회로 나타났다.

[표 28] 제3구간(2015~2021)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3회 이상)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가중치
1	장기보존	전자기록	6
2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5
2	국회기록관리	국회기록보존소	5
4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4
4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4
6	기록정보서비스	국가기록원	3
6	데이터세트	장기보존	3
6	보존기간	단위과제	3

제3구간(2015~2021)의 연결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기록관리기준표’가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표 29] 참조). 두 번째로 ‘장기보존’의 연결 중심 값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OAI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데이터세트’, ‘단위과제’, ‘기록정보서비스’, ‘보존기간’, ‘기능분류체계’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제3구간(2015~2021) 연결 중심 값(상위 19개)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1	기록관리기준표	0.155556	10	행정정보시스템	0.044444
2	장기보존	0.111111	10	평가	0.044444
3	OAIS참조모형	0.088889	10	국가기록원	0.044444
3	디지털아카이브	0.088889	10	전자기록	0.044444
3	데이터세트	0.088889	10	영국 TNA	0.044444
3	단위과제	0.088889	10	정보패키지	0.044444
7	기록정보서비스	0.066667	10	보존메타데이터	0.044444
7	보존기간	0.066667	10	공개소프트웨어	0.044444
7	기능분류체계	0.066667	10	지방자치단체	0.044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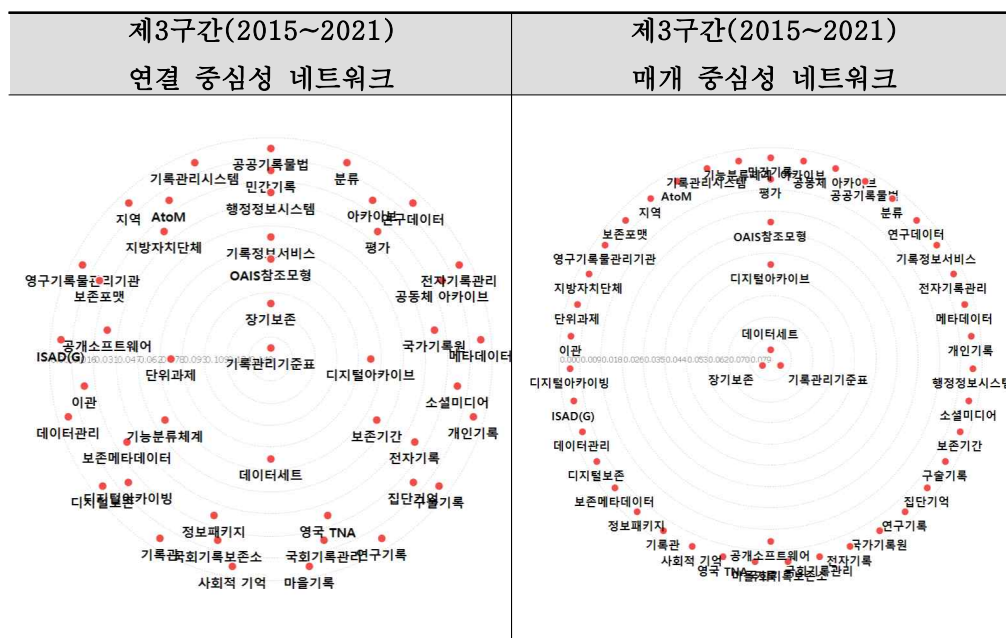
제3구간(2015~2021)의 매개 중심 값 상위 5개 키워드를 [표 30]과 같이 제시하였다. ‘장기보존’이 가장 높은 연결 중심 값을 가졌으며, 두 번째로 ‘기록관리기준표’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데이터세트’, ‘디지털아카이브’, ‘OAIS참조모형’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제3구간(2015~2021)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순위	키워드	매개 중심 값
1	장기보존	0.087879
2	기록관리기준표	0.081818
3	데이터세트	0.080808
4	디지털아카이브	0.047475
5	OAIS참조모형	0.032323

제3구간에서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를 활용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 시각화 결과를 비교하였다([그림 18] 참조). 제3구간 기록 보존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기록관리

기준표’, ‘장기보존’, ‘OAI스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데이터세트’, ‘단위 과제’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은 ‘장기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데이터세트’ 세 개의 키워드가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아카이브’, ‘OAI스참조모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제3구간(2015~2021) 3회 이상 출현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기록관리기준표’ 키워드는 제3구간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키워드이다. [그림 17]에서 ‘기록관리기준표’는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기능분류체계’, ‘보존기간’과 같은 7개의 키워드와 직접 연결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록관리기준표’ 키워드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른 키워드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출현 빈도도 높아 제3구간의 핵심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단위과제별로 처분 기준을 제시한 표인데, 제3구간에서는 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 단위인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연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련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연구에서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는 연구 등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문찬일, 2016;정상희, 2016;현문수, 2021;윤성호, 유신성, 최기쁨, 오효정, 2020).

한편, ‘장기보존’ 키워드도 제3구간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키워드이다. [그림 17]에서 ‘장기보존’은 ‘디지털아카이브’, ‘보존포맷’, ‘데이터세트’, ‘전자기록’, ‘OAIS참조모형’과 같은 5개의 키워드와 직접 연결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장기보존’은 제3구간에서 매개 중심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주제 확장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이다. 따라서 제3구간(2015~2021)에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핵심 키워드는 ‘기록관리기준표’와 ‘장기보존’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종합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록 보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의 생산성 분석, 주제 키워드별 분석, 주제 영역 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국내 기록 보존 연구논문 463편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2000년~2007년, 2008년~2014년, 2015년~2021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간별 기록 보존 연구현황을 파악하였을 때, 기록 보존 연구는 200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기록 보존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 294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별 논문 발행 수, 공동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등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 분포를 조사하였다. 전 구간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 분포를 파악하여 기록 보존 연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발표하는 소수의 연구자가 있으며, 75.85%를 차지하는 223명의 연구자는 기록 보존 연구를 단 1회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간별 연구자 분포 및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정 연구자의 연구 편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기록 보존 분야의 연구 영역 활성화 및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의 동일 분야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 연구자 및 공동 연구자 현황을 파악하였을 때, 전 학문 분야의 일반적인 연구 동향과 유사하게 기록 보존 연구의 공동 연구 비율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구자 소속기관별 생산성 분포는 ‘대학’, ‘연구기관’, ‘기타 정부기관’, ‘기타(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 ‘국가기록원’, ‘중앙행정, 지자체’, ‘도서관/미술관’, ‘민간기록관’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기록관’과 ‘중앙행정, 지자체’의 연구자는 공동 연구보다 단일 연구를 더 많이 수행하는 반면, ‘대학’과 IT산업체 및 민간기업체와 같은 ‘기타’는 단독 연구보다 공동 연구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총 463편의 연구에서 연구자가 부여한 기록 보존 연구논문의 주제 키워드 2,278개 키워드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구간(2000~2021)에서 등장한 키워드의 81.4%는 1회 출현하였으며, 극소수의 키워드가 여러 번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단어 출현 빈도의 멱함수 법칙을 보여준다. 국내 전 구간 주제 키워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출현한 키워드는 ‘전자기록(32회)’, ‘장기보존(30회)’, ‘디지털보존(27회)’, ‘평가(24회)’ 순이다. 다음으로 ‘기록정보서비스(21회)’, ‘OAIS참조모형(20회)’, ‘기록관(20회)’, ‘디지털아카이브(19회)’, ‘메타데이터(19회)’, ‘국회기록보존소(16회)’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구간별 키워드 출현 빈도분석을 통해 제1구간(2000~2007)에서는 ‘디지털보존(13회)’, ‘디지털화(7회)’, ‘기록관리시스템(6회)’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디지털 정보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즉 아카이브를 위한 개념적 구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2구간(2008~2014)에는 앞선 제1구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9회)’, ‘국가기록원(8회)’ 등의 기관에서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과 디지털보존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구간(2015~2021)은 기록물의 종류 중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세트(8회)’ 등 연구 영역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키워드를 범주화하여 키워드 주제영역별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절차/프로세스 모델’ 영역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서비스’와 ‘이론, 교육’은 각 3.54%, 3.2%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구간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보존, 디지털화, 장기보존, 아카이빙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절차/프로세스’ 영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기초 절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구간에서는 ‘절차/프로세스’와 ‘기관’ 영역의 연구가 많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 제2구간에서는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 이관, 평가하는 등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3구간에서는 ‘시스템’ 영역의 분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록물 유형’ 영역이 구간별로 점차 증가하여 제3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기록물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기록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간별 키워드 출현 빈도분석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내 기록 보존 연구주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1구간에서는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는 실재와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는 데이터세트 등 세부적인 연구 진행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부여한 기록 보존 연구논문의 주제 키워드 2,278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도구는 NetMiner V.4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 중심성 분석,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2000년~2007년, 2008년~2014년, 2015년~2021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간별 핵심 주제 키워드와 연구 주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록 보존 연구의 구간별 핵심 주제 키워드, 즉 기록 보존 연구에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전 구간(2000~2021)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제1구간(2000~2007)에서는 ‘OAIS참조모형’, 제2구간(2008~2014)에서는 ‘전자기록’, 제3구간(2015~2021)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와 ‘장기보존’이 핵심 주제 키워드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간별로 고유하게 등장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구간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진본성’, ‘AIP’, ‘전자저널’, ‘기록관’과 같은 5개의 고유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제2구간에서는 ‘거시평가’, ‘기능평가’,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리포지터리’, ‘OASIS’, ‘DRAMBORA’, ‘디지털큐레이션’, ‘메타데이터’, ‘기록생애주기’, ‘공공기록물법’, ‘국가기록관리체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픈엑세스’, ‘구술기록’, ‘구술사’, ‘데이터관리’, ‘연구데이터’와 같은 18개의 고유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제3구간에서는 ‘AtoM’, ‘공개소프트웨어’, ‘정보패키지’, ‘보존포맷’,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 ‘지방자치단체’, ‘영국 TNA’, ‘민간기록’, ‘국회기록관리’, ‘국회기록보존소’, ‘공동체 아카이브’, ‘집단기억’, ‘아카이브’, ‘소셜미디어’와 같은 19개의 고유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제1, 2, 3구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에서 모두 등장한 주제 키워드는 ‘전자기록’, ‘OAIS참조모형’,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이다. 해당 주제 키워드는 매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연구자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 키워드이다. 즉, 기록 보존 연구에서 제외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며 매 구간 연구될 필요성이 있는 핵심 주제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은 연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와 에물레이션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전자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경남, 2006; 김명훈, 오명진, 이재홍, 임진희, 2013).

제1구간에서 영향력과 확장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OAIS참조모형’이며, ‘디지털보존’과 ‘디지털화’ 등 디지털 기록과 관련된 키워드의 출현도가 높았다.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 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해 OAIS참조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조사하거나(홍재현, 2004), OAIS참조모형 적

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김희정, 2003;김성겸, 2007)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통해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즉 아카이브를 위한 개념적 구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받았으며 관련하여 이론 중심 연구가 이루어진 것 알 수 있다.

제2구간에서 영향력과 확장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전자기록’이며, ‘평가’, ‘거시평가’, ‘기능평가’, ‘이관’, ‘데이터관리’, 디지털큐레이션’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프로세스 영역의 주제가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었고, ‘DRAMBORA’와 같이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위험관리기법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2구간에서는 제1구간에서 이루어진 개념적 구조 틀을 마련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전자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실제와 적용 중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3구간에서 영향력과 확장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기록관리기준표’와 ‘장기보존’이며,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기록물의 세부적인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제3구간에서는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등 변화에 대한 대처 관련 연구(왕호성, 설문원, 2017;한희정, 윤성호, 오효정, 양동민, 2020;윤성호, 이정은, 양동민, 2021),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영역에서 보존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록에 관련한 연구(이귀영, 김지현, 2015;이정은, 이지원, 2017;김태영, 2019) 등이 수행되었다.

20여년의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보존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내 기록 보존 연구주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록 보존 연구의 중심이 되는 연구 주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제 키워드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동일한 맥락으로 시간의 결과에 따른 기록 보존 분야 연구 주제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국내 기록 보존 연구는 제1구간에서는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는 실제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는 데이터세트 등 기록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 주제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 사항과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 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밝힘으로써 기록 보존 연구의 생산성과 연구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 보존 분야 연구주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록 보존 연구 동향을 연구자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핵심 연구자 파악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 형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기록 보존 연구 동향을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핵심 주제영역과 세부 주제영역을 밝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 주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요 학술지 2종(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과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 4종(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게재된 ‘기록 보존 연구’ 463편을 분석하였다. 이 중 기록 보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802명의 연구자 사항을 수집하고, 해당 연구자가 부여한 2,278개 주제 키워드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연구자가 부여한 주제 키워드를 추출하여 정제한 뒤, NetMiner V.4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빈도분석, 연결 중심성 분석,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고 시각화하는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2000년~2007년, 2008년~2014년, 2015~2021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록 보존 연구의 생산성이 높았던 핵심 연구자는 ‘설문원(15편)’, ‘이소연(10편)’, ‘임진희(8편)’, ‘김유승(7편)’, ‘이경용(7편)’, ‘이승일(7편)’, ‘현문수(7편)’ 등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제1구간 ‘서혜란(6편)’, 제2구간 ‘설문원(8편)’, 제3구간 ‘설문원(7편)’이 가장 연구 생산성이 높은 연구자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전 구간에서 단독 연구가 57.24%, 공동 연구가 42.76%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구간의 평균 연구자는 1.73명이며, 제1구간은 1.34명, 제2구간은 1.70명, 제3구간은 2.01명이었다. 기록 보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독 연구는 점차 감소하고 공동 연구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셋째, 연구자 소속기관별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전체 연구자 802명 중 ‘대학’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73.82%로 가장 많았다. ‘정부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11.35%,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7.61%, ‘기타’ 3.87%, ‘도서관/미술관’ 2.37% 순으로 연구자 소속기관 별 분포가 나타났다. 가장 적은 연구자가 소속된 영역은 ‘기록관’으로 1.00%를 차지하였다.

넷째, 기록 보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수행된 주제 영역은 ‘절차/프로세스’로 전체의 28.6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술, 도구(14.14%)’, ‘기관(13.8%)’, ‘기록물 유형(13.64%)’, ‘법, 정책, 제도(11.78%)’, ‘시스템(11.28%)’, ‘서비스(3.54%)’, ‘이론, 교육(3.2%)’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록 보존 연구에서 영향력이 높은 주제 키워드는 전 구간에서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순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 보존’, ‘아카이빙’ 순이다.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평가’ 순이다.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 ‘장기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데이터세트’ 순이다. 즉, 이들 키워드가 기록 보존 연구의 주제로 주로 언급되었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기록 보존 연구에서 연구 논문의 확장성이 높은 주제 키워드는 전 구간에서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은 ‘OAIS참조모형’, ‘전자기록’, ‘장기보존’, ‘아카이빙’, ‘디지털 보존’ 순이다. 제2구간은 ‘전자기록’, ‘평가’, ‘디지털아카이빙’, ‘장기보존’, ‘국가기록원’ 순이다. 제3구간은 ‘장기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데이터세트’, ‘디지털아카이브’, ‘OAIS참조모형’ 순이다. 즉, 이들 키워드가 기록 보존 연구에서 보다 세부적인 연구 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매개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기록 보존 연구 논문의 중심이 되는 주제 키워드는 전 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와 ‘장기보존’이 핵심 주제 키워드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내 기록 보존 연구주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 ‘OAIS참조모형’ 등 기록 보존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평가’, ‘DRAMBORA’ 등 보존 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실제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는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 보존연구 주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된 국내 기록 보존 연구 463편을 대상으로 연구자 사항과 연구자가 부여한 주제 키워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록 보존 연구의 지난 성과를 조명하고, 학술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학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경희. (2021). 서울시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사업 키워드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 :텍스트마이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6(70), 115-128.
- 강동준, 이길남. (2015). SNA를 활용한 한국무역학회지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무역학회지』, 40(5), 1-23.
- 곽기영. (2017). 『소셜네트워크분석』. 서울: 청람.
-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 (2004). 『기록물 보존기술 및 매체별 관리요령』. p.1. 서울: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
- 국가기록원. (2012). 『기록관리개론: 기록관리실무시리즈1』, p.139. 대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과.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도서관용어해설. 『도서관연구소 웹진』, 37 : 1-2.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 김명훈, 오명진, 이재홍, 임진희. (2013). 전자기록 장기보존 전략으로서의 에물레이션 사례 분석. 『기록학연구』, (38), 265-309.
- 김성겸. (2007). 전자기록 정보패키지 구축 사례 연구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기술규격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6), 97-142.
- 김성환, 오효정. (2018). 온라인 공개 국제학술지 기반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지리적 시간적 비교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52(2), 165-189.
- 김지현. (2018). 북미 대학도서관 연구데이터 관리 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 데이터 리터러시 세부 역량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5(4), 7-36.
- 김창한. (2020). “국내 기록 평가 연구 동향 분석”.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영, 양동민, 최상기, 오효정. (2019). 소셜미디어 아카이빙을 위한 수집 및 보존방안. 『정보관리학회지』, 36(2), 79-104.
- 김한길. (2015).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섭, 강보라. (201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의 연구 주제 분석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83-204.
- 김희정. (2003). 전자저널 아카이빙을 위한 OAIS 참조모형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115-141.
-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김희정. (2006).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 남성운, 윤대현. (2001).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101-120.
- 문찬일. (2016).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 구축 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9), 247-275.
- 박경열. (2018).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한국관광학회지 공저자 네트

- 워크 분석 - 관광학 연구 공저자를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42(6), 173-191.
- 박미연. (2012). “계량서지학 기법을 이용한 국내 마취통증의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균, 김택윤, 송민. (2017).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윤동주 연구의 체계계량학적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1), 191-207.
- 배경임. (2021). 다문화교육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동시 출현단어의 시계열 분석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11(10), 159-170.
- 배수라. (2013).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비교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구, 이웅균. (2019).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한 국내·외 BIM 연구 동향 분석. 『한국건축시공학회지』, 19(1), 95-103.
- 서선경, 정은경. (2013). 동시 출현단어 분석 기반 오픈 액세스 분야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207-228.
- 서은경. (2004). 디지털 아카이브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개념적 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3-34.
- 서은경, 이원경, 박은경, 이옥성. (2015).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근 연구동향 분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정보관리학회지와 비교하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315-343.
-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2003).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0(2), 241-262.
- 설문원. (2021).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 『기록학연구』, (67), 267-318.
- 손동원. (2013). 『사회 네트워크 분석』, p.95. 서울:경문사.

- 송병호. (2005).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43-59.
- 신동희. (2020). 생산부터 보존까지 기록관리 전반에서 이해하는 기록평가: 미국 뉴욕주기록관의 사례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177-199.
- 신동희, 김유승.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59.
- 신종순, 최찬호. (2001). 자료매체의 보존성.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2), 71-84.
- 신지원, 최상희. (2021).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위한 민간사진기록 수집 활성화 방안: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4), 163-181.
- 오정심. (2019).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지식연결망 연구 - 정선아리랑을 중심으로 -. 『문화재』, 52(3), 172-187.
- 왕호성, 설문원. (20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23-47.
- 예진 허치슨, 차현민, 오재훈, 강형구, 임태호, 이윤재, 강보승, 김창선, 최혁중. (2015). 대한외상학회지에 게재된 문헌들의 추세: 계량서지학과 인용을 이용한 분석. 『대한외상학회지』, 28(3), 182.
- 윤성호, 유신성, 최기쁨, 오효정. (2020).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책정 현황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139-160.
- 윤성호, 이정은, 양동민. (20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으로서 SIARD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99-118.

- 윤혜원. (2020). “교육행정학 협업연구 네트워크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6).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보존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기록학연구』, (14), 191-240.
- 이귀영, 김지현. (2015). 중앙행정기관의 소셜미디어 아카이브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141-167.
- 이다니엘. (2020). 계량서지학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음악학 연구의 융합적 고찰.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5), 393-410.
- 이민호. (2017). 행정학 학술지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 57-87.
- 이보람.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평가·폐기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8, 37-73.
- 이상민. (2000). 역사기록물(Archives)의 항구적인 보존화 이용 : 보존전략과 디지털정보화. 『기록학연구』, 1, 23-76.
- 이소연. (2013).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47-283.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윤정, 정연경. (2020). 기록관리 교육지침서 개발을 위한 핵심 범주와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27-46.
- 이은서. (2020). “동시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우. (2009). “우리나라 기술경영학의 연구동향 : 계량서지학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열, 장덕진. (2005). 계량서지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91-214.
- 이재윤, 최선희. (2010). 국내 학술지의 인용 네트워크 지수 측정. 『제17

- 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5-20.
- 이정은, 이지원. (2017). 공공기관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 및 특징 분석 -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101-125.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좌은재, (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핵심역량 관련 연구동향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경. (2011).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2001년-2010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 45(2), 367-391.
- 정의범, 박진수. (2019). 친환경 공급사슬관리의 체계적 문헌 조사 연구: 계량서지학과 키워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8(1), 133-157.
- 정의연, 최상희. (2019). 디지털 보존 관련 학술연구 및 교과 주제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25-43.
- 정상희. (2016).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9), 327-359.
- 정숙영, 김순희. (2021). 영미의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내 계속교육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231-247.
- 조애란. (2020). 미국 준현용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연방레코드 센터의 기록 이관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139-160.
- 최원태. (2001).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및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한

- 국문헌정보학회지』, 35(2), 23-40.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고양: 역사비평사.
- 한희정, 윤성호, 오효정, 양동민. (2020). 데이터세트 보존포맷 검증방안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정보 데이터세트의 SIARD 적용을 통해. 『정보관리학회지』, 37(2), 251-284.
- 허영수, 박지홍. (2021). 동시 출현단어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서의 학습전략 연구 동향 탐색. 『정보관리학회지』, 38(2), 65-86.
- 현문수. (2021). 국가기록평가의 관점에서 본 환경 분야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기록학연구』, (67), 139-203.
- 홍재현. (2004). 디지털 정보자원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 설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175-204.

2. 국외문헌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Larivière, V., Gingras, Y., Sugimoto, C. R. & Tsou, A. (2015). Team size matters: Collaboration and scientific impact since 1900.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6(7), 1323-1332.
- M. Callon, J. Law & A. Rip. (1986). Mapping of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 The MACMILLANDPRESS LTD
- Moody, J. (2004). The structure of a social science collaboration network disciplinary cohesion from 1963 to 1999.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213-238.

Small, H. (1973).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4), 265-269.

3. 웹 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2021.09.23.). URL: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103000000.do?schFld=0&schStr=%EA%B3%84%EB%9F%89%EC%84%9C%EC%A7%80%ED%95%99&schM=view&page=1&ordFld=regdt&ordBy=DESC&viewCount=10&id=4565&schBdcode=&schGroupCode=>

부 록

국내 기록 보존 연구 463편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의 관점에서 보는조선시대 성리학 세계관과 기록·기록관리	노명환(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51)	2017	pp.235~278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연구	이도순(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69)	2021	pp.95~128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 분석	이경남(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47)	2016	pp.227~254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백선헌	기록학연구	(15)	2007	pp.95~14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	김유승(중앙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008	pp.5~25
『사기』와 『역사』에 담긴 기록학의 기초: 역사-인간[Homo Historicus], 사마천과 헤로도토스	오항녕(전주대학교)	기록학연구	(65)	2020	pp.365~396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이승일(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2007	pp.43~71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이승일(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2008	pp.5~38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노명환(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14)	2006	pp.359~388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박지태(국가기록원), 김성겸(국가기록원), 황정원(국가기록원)	기록학연구	(57)	2018	pp.113~136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개발 연구	박성우(광주대학교), 정대근(전남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017	pp.373~403
A global issue: preservation of digital objects	H a n s Hofman(National Archives of the netherland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2002	pp.149~172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 서울시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이세진(서울특별시), 김화경(한국문화정보기술(주))	기록학연구	(50)	2016	pp.273~309
CiteSpace 적용을 통한 디지털 보존 지식영역 비주얼화 연구	김희정(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문화정보학회지	39(4)	2005	pp.89~104
Conservation & Restoration of Paper Records	박지선(용인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2002	pp.173~186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Cooperation Between Mongolian and Korean Archives	D. 밧자갈(몽골국가기록원)	기록학연구	(35)	2013	pp.209~216
DAF(Data Asset Framework)를 활용한 입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 개선 방안 -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	김주섭(전북대학교), 한연중(국립산림과학원), 유원재(국립산림과학원), 전예린(전북대학교), 김선태(전북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2020	pp.103~131
DRAMBORA를 응용한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 위험관리체계 연구	임진희(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학연구	(27)	2011	pp.119~167
FAIR 원칙: 데이터 관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고려사항	김학래(중앙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2)	2021	pp.155~172
Feature Analysis of Metadata Schemas for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from the Viewpoint of Records Lifecycle	백재은(University of Tsukuba), Shigeo Sugimoto(University of Tsukuba)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2010	pp.75~99
FRBR기반의 전통건축물 메타데이터 스키마개발에 관한 연구	이윤용(전북대학교), 강은비(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대학원), 이재나(전북대학교), 김용(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2014	pp.29~57
IMPLEMENTED PROJECTS IN MONGOLIAN ARCHIVAL SECTOR WITH FOREIGN CONTRIBUTION AND THEIR RESULTS	D. 졸부(몽골정부 내각기록보존소)	기록학연구	(35)	2013	pp.231~239
KM 기반의 기록관리 및 일반 정보관리 통합화 연구 - 공기업을 중심으로 -	정기애(한국전력기술(주)), 남영준(중앙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2008	pp.23~43
Linked Open Data기반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 서비스 확장에 관한 연구	이정현(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이윤용(전북대학교), 방기영(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김용(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2015	pp.55~82
NGO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최성연(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혜은(숙명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2)	2021	pp.93~113
OAIS 모형의 PDI(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록 보존기술요소 연구	우학명(국회도서관), 김희정(국제백신연구소)	정보관리학회지	26(4)	2009	pp.227~248
OAIS 참조모형 기반 민중가요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강민정(전남대학교 대학원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전공), 장우권(전남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2021	pp.211~230
OASIS의 선정지침 개선(안)에 관한 연구	노영희(건국대학교), 고영선(건국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012	pp.105~137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PREMIS 기반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	박옥남(한남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012	pp.83~113
PREMIS 데이터모델 적용을 위한 사무문서 컨텐츠모형 설계 연구	문주영(숭의여자대학), 김태수(연세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8(1)	2011	pp.43~68
RiC-CM v0.2 분석을 통한 온톨로지 모델링에 관한 연구	전예지(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이혜원(서울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2020	pp.139~158
RiC에 대한 기록공동체의 리뷰를 통해 본 기록물 기술표준 개선에 위한 제안	박지영(한성대학교)	기록학연구	(54)	2017	pp.81~109
Shifting from paper to Digital Records - Preservation?	Michele V. Cloonan(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2002	pp.137~148
The Concept of Finding Aids	신 동 회 (S t a t 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1)	2003	pp.93~110
デジタルブリザベーション時代の紙資料保存の重要性	Isamu Sakamoto(日本 吉備 國際大學 文化財修復國際協力學科 教授, 東京修復保存 センター ペーパー コンサ バタ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2002	pp.213~218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시론적 분석	김명훈(강릉원주대학교)	기록학연구	(66)	2020	pp.229~265
가치분석에 의한 기록관리 선순환 체계의 모색	임나래((주)오름정보전임연구원)	기록학연구	(15)	2007	pp.263~306
가톨릭교회 오픈소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황지민(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이지원(대구가톨릭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8(1)	2021	pp.263~291
가톨릭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	최상희(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2016	pp.321~342
갑오·대한제국기(1895~1905년) 민사제관 판결문 활용방안 연구 -한성재판소를 중심으로-	황외정 (경희대학교 기록관),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43)	2015	pp.103~145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와 등기실제	이승휘(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17)	2008	pp.85~114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권소현(명지대학교),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24)	2010	pp.173~214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권미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기록학연구	(16)	2007	pp.305~341
개별관리 대통령기록물의 연계관리를 위한 통합 메타데이터 설계 방안 연구	조현양(경기대학교), 장보성(중앙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2013	pp.105~124

제 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 호 사 항	발행 연도	수록면
개인 일기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와 전망 : “5월12일 일기컬렉션”을 중심으로	최효진(한국국가기록원, 임진회(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46)	2015	pp.95~152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 - ‘나의 아카이브(My Archive)’ 만들기	최유리(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임진회(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47)	2016	pp.5~49
건축도면 아카이브의 기술요소 비교 연구	장윤미(이화여자대학교),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2010	pp.53~74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 방안 연구	강수나(명지대학교),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19)	2009	pp.3~55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이승억(국가기록원)	기록학연구	(38)	2013	pp.189~223
古文獻의 保存處理에 관한 事例研究 -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에서 발견된 [金剛經三家解]를 중심으로 -	노기춘(전남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2004	pp.79~94
古文獻의 保存處理에 관한 事例研究 - 長興寶林寺四天王像에서 발견된 月印釋譜(권25)를 중심으로-	노기춘(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학술진흥재단 연구교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2003	pp.52~77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 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ICA AtoM을 중심으로	이보람(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황진현(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민영(한국외국어대학교), 김형희(한국외국어대학교), 최동운(한국외국어대학교), 최윤진(한국외국어대학교), 임진희(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39)	2014	pp.194~229
공개포맷에 기반한 전자기록 보존 포맷 제설계 방향 연구	오세라(네모아이씨터(주)), 정미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임진희(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4)	2016	pp.79~120
공공 전자기록관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현문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록학연구	(47)	2016	pp.255~286
공공 전자기록의 이관 현황에 관한 기초 연구	현문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2014	pp.33~54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절차 연구 :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황진현(강릉원주대학교), 백영미(국가철도공단), 임진희(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70)	2021	pp.41~83
공공기관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 및 특징 분석 -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이 정 은(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이지원(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2017	pp.101~125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책정 현황 분석	윤성호(전북대학교), 유신성(전북대학교), 최기쁨(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2020	pp.139~160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개발	진수진(한국방송통신위원회 기록연구사)	기록학연구	(18)	2008	pp.3~36
공공기관의 이메일기록 관리 방안 연구	송지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연구사)	기록학연구	(15)	2007	141-183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숙(국가기록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2007	pp.73~94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시귀선(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2009	pp.159~188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은비(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과과 기록관리학전공),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2)	2021	pp.49~68
공공영역의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 기록	오명진(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32)	2012	pp.45~78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평가론의 재조명	설문원(부산대학교), 김영(부산대학교)	기록학연구	(48)	2016	pp.209~251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김주관(동국대학교)	기록학연구	(33)	2012	pp.85~112
공문서 컴포넌트 오픈포맷 채택이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미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오세라(네모아이씨티(주)), 임진희(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2016	pp.29~55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유형 확대방안	송병호(상명대학교)	기록학연구	(30)	2011	pp.175~204
공적(公的)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기록 평가기준 연구	이미영(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46)	2015	pp.287~32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DMP를 적용한 연구기록물 관리	구찬미(국방과학연구소), 김순희(충남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2019	pp.1~2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공통기능 보존기간기준표 설계 사례	이미영(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윤미(한국기계연구원), 심세현(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슬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현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미경(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2018	pp.125~14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록의 평가에 관한 연구	이미영(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41)	2014	pp.75~111
과학데이터 보존 및 활용모델에 관한 연구	김선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선화(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태영(전북대학교), 김용(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2010	pp.81~93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조민지(한국외국어대학교), 이은화(4.16기억저장소), 이영남(한신대학교)	기록학연구	(66)	2020	pp.267~316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광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납본과 보존 관리 개선안 연구	김소량(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이명규(전남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3)	2019	pp.129~147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 연구	이영은(한신대학교)	기록학연구	(27)	2011	pp.35~88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연구	정상희(충청북도)	기록학연구	(49)	2016	pp.327~359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방기록물 관리 현황 분석	김예지(경북대학교 일반 대학원 기록학), 이성신(경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2019	pp.179~204
교무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 분석 -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	임미숙(한국의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	기록학연구	(18)	2008	pp.91~138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에 관한 연구-영국 TNA와 미국 NARA를 중심으로	이은영(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28)	2011	pp.83~121
교수들의 기관 레포지터리 수용에 관한 연구: 혁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8(4)	2011	pp.141~160
교수들의 셀프 아카이빙 저작물의 종류와 저장소에 관한 연구	김지현(오레곤보건과학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2010	pp.53~74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심정보(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학연구	(16)	2007	pp.203~258
교육대학교의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현황 및 분석에 관한 연구 -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	배성중(전주교육대학교 기록연구사),오호정(전북대학교),장준감(전북대학교),김용(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1)	2016	pp.187~216
구한말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관한 일고찰	김건우(중앙인사위원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2007	pp.111~128
국·공립 대학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 부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	이주연(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008	pp.167~187
국가기록관 웹사이트의 평가에 관한 연구	장희정(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012	pp.51~70
국가기록원 재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은비(전북대학교 기록관리대학원),박소리(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이윤희(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최효영(전북대학교),김용(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2015	pp.53~78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3)	2013	pp.73~97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패킷 기반 디렉토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	정미옥(대구가톨릭대학교 기록대학원),최상희(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2019	pp.217~234
국가기록원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서혜경(신라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2010	pp.141~167

제 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국가기록평가의 관점에서 본 환경 분야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현문수(충남대학교)	기록학연구	(67)	2021	pp.139~203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앙 및 연방정부 기록의 평가를 중심으로	현문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2019	pp.175~209
국가지정기록물 관리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최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47)	2016	pp.51~91
국내 기관 리포지토리에서 DSpace 메타데이터 요소의 활용 현황	이은주(동의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016	pp.465~487
국내 기업 보존기록에 관한 기초 연구	남재우(건국대학교), 김장환(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학연구	(55)	2018	pp.135~163
국내 대학기록물 관리의 현황 분석	배순자(전주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2(3)	2005	pp.55~70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3	pp.247~283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한희정(전북대학교), 두효철(전북대학교), 이영지(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2)	2018	pp.199~224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 회고와 전망 -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011	pp.7~31
국내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양기덕(경북대학교), 신다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016	pp.191~217
국내 클래식 음악 공연 정보의 참여형 아카이브 포털 기능 설계	장재우(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이해영(명지대학교),이승희(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김인택(명지대학교),백대원(㈜세미콘네트웍스)	정보관리학회지	36(2)	2019	pp.223~254
국내외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현황과 개선 방안	이재영2(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안규진(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문현숙(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곽정(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4)	2021	pp.117~135
국립박물관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장현중(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2008	pp.153~179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여진원(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위원),윤지수(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위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2)	2021	pp.69~92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한상완(연세대학교), 김성수(청주대학교), 서혜란(신라대학교), 윤대현(기타기관), 김희정(연세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	2002	pp.67~95
국방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 연관정보 검색을 위한 자동화된 비즈니스 서비스 식별	변영태(홍익대학교), 황상규(홍익대학교), 정찬기(국방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7(4)	2010	pp.33~47
국외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정책 비교 분석-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를 중심으로 -	소정의(전북대학교), 한희정(전북대학교), 양동민(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2018	pp.125~148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에 관한 연구	서연주(국회도서관), 양승민(숭실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2(3)	2005	pp.201~211
국회 기록화 전략 모형 수립 연구	김장환(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46)	2015	pp.189~231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유승(중앙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012	pp.93~115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공표 방안 연구	김장환(국회도서관)	기록학연구	(35)	2013	pp.93~132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	김유승(중앙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011	pp.95~119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	정태영(중앙대학교), 김유승(중앙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2012	pp.141~165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안전 분석을 통한 국회기록관리 정책 연구	성면섭(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김장환(국회도서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4)	2021	pp.201~221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최혜영(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연구원), 이승일(강릉원주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주임교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2019	pp.97~121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	김유승(중앙대학교), 김장환(국회도서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2013	pp.81~106
국회기록보존소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장윤서(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8(3)	2021	pp.41~71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유승(중앙대학교), 설문원(부산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013	pp.25~48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김장환(국회도서관), 이은별(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2015	pp.103~136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김장환(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학연구	(55)	2018	pp.39~71
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과 협력 과제 - 박물관 · 기록관 · 도서관을 중심으로 -	박성진(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2008	pp.75~88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설문원(부산대학교)	기록학연구	(23)	2010	pp.3~43

제 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 사항	발행 연도	수록면
기록과 역사- 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 역사이론의 관계 -	전명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록학연구	(11)	2005	pp.123~143
기록과 정보의 상관관계	송병호(상명대학교)	기록학연구	(20)	2009	pp.3~32
기록관 체제 재검토	곽건홍(한남대학교)	기록학연구	(27)	2011	pp.3~33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박미애(한남대학교)	기록학연구	(25)	2010	pp.132~196
기록관리 교육지침서 개발을 위한 핵심 범주와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이윤정(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 기록 관리학회지	20(1)	2020	pp.27~46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의 실행 적합성 평가 - 맥락 요소를 중심으로 -	설문원(부산대학교), 조은희(명지대학교)	한국 기록 관리학회지	10(2)	2010	pp.215~243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정부산하공공기관 적용에 관한 사례 연구	김형주(국방기술품질원), 김수현(국방기술품질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2)	2017	pp.35~56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 출처주의를 중심으로	설문원(부산대학교)	기록학연구	(52)	2017	pp.59~117
기록관리기준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연구	이미영(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15)	2007	pp.185~218
기록관의 교육서비스 사례유형 연구	김희정(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기록 관리학회지	8(1)	2008	pp.27~43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평가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	장현중(부산대학교), 서지인(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한국 기록 관리학회지	21(4)	2021	pp.183~200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이영학(한국의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26)	2010	pp.63~93
기록물 기술을 위한 MARC AMC에 관한 연구	한경신(한남대학교)	한국 문헌 정보학회지	37(3)	2003	pp.157~176
기록물 매체수록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박지혜(국가기록원)	기록학연구	(63)	2020	pp.227~268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	천권주(육군기록정보관리단), 김효민(서울대학교)	기록학연구	(23)	2010	pp.45~86
기록물 보존장소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임진수(법무부)	기록학연구	(63)	2020	pp.269~299
기록물 재평가 및 처분을 통한 보존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서은경(한성대학교)	한국 문헌 정보학회지	40(3)	2006	pp.35~51
기록물 폐기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시청 기록관 폐기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김명훈(한국의국어대학교)	한국 기록 관리학회지	15(4)	2015	pp.7~24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비밀기록관리절차 개선방안 -유관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천권주(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학연구	(20)	2009	pp.33~75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이승일(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기록학연구	(18)	2008	pp.37~89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 분석- 국공립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김정남(부산대학교)	한국 기록 관리학회지	6(1)	2006	pp.43~63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박진희(전북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2(3)	2005	pp.351~378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도윤지(울산대학교)	기록학연구	(36)	2013	pp.69~119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김정하(대전대학교)	기록학연구	(21)	2009	pp.3~40
기록물평가심의서 연구 : 교육청 기록관을 중심으로	박미애(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	기록학연구	(61)	2019	pp.157~190
기록보존소 발행 교육용 사료집에 관한 고찰 - 호주와 미국, 영국 국립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	김상호(대구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2004	pp.87~100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설문원(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12	pp.203~232
기록사랑마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I군 기록사랑마을을 중심으로 -	오유진(전북대학교), 한희정(전북대학교), 육혜인(전북대학교), 김수정(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2015	pp.7~30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서혜란(신라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005	pp.25~41
기록의 발견과 이해를 위한 온라인 검색가이드 연구 - 국립보존기록관을 중심으로 -	설문원(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2015	pp.53~87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조영삼(한신대학교)	기록학연구	(22)	2009	pp.77~114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설문원(부산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5(3)	2008	pp.249~271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방향	이혜영(명지대학교), 김은영(명지대학교), 남경희(공주시청), 이미라(대전보건대학), 김영은(명지대학교), 김현지(명지대학교), 이은화(명지대학교), 전혜영(명지대학교), 최정윤(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2007	pp.25~42
기록정보콘텐츠의 품질향상 방안 연구 - 한국·영국·일본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양인호(㈜ 크루메이트 기록정보팀)	기록학연구	(23)	2010	pp.87~139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김명훈(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24)	2010	pp.73~112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	신 동 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김유승(중앙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2016	pp.41~59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	설문원(부산대학교)	기록학연구	(67)	2021	pp.267~318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 (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조민지(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27)	2011	pp.89~118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기업 소송에 대비한 정보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 세도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중심으로 -	설문원(부산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015	pp.325~354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김효선(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2021	pp.163~186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 구축 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문찬일(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록학연구	(49)	2016	pp.247~275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웹 아카이빙 주제영역 연구	김희정(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011	pp.235~248
노동 아카이브(Labor Archives) 설립 환경에 관한 연구	곽건홍(한남대학교)	기록학연구	(20)	2009	pp.77~114
노동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연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곽건홍(한남대학교)	기록학연구	(51)	2017	pp.337~375
다크 아카이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패키지 구축	박효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전공), 이승민(중앙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2020	pp.261~281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설문원(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013	pp.231~254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에 관한 고찰	김희용(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손계영(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2018	pp.193~219
대량기록물 처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의 디지털저장소 배치형상 연구	임진희(명지대학교), 이대옥(서강대학교)	기록학연구	(32)	2012	pp.177~217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한 연구	김성수(청주대학교), 서혜란(신라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	2002	pp.41~66
대학 Archives란 무엇인가 : Archives의 개념과 내용, The Concept and Contents of University Archives	전상숙(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구위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2)	2001	289-306
대학 내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연구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2012	pp.433~455
대학 학과기록의 디지털 리포지터리 플랫폼 구축	조용훈(한성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서은경(한성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2016	pp.209~233
대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	김상호(대구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1)	2000	259-278
대학도서관에서의 디지털보존 실태분석 연구	서은경(한성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3(1)	2016	pp.269~292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D대학을 사례로	박유진(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사학과), 정영미(동의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2)	2019	pp.193~211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19)	2009	pp.153~192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 사항	발행 연도	수록면
대형 대학병원의 의무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이주연(전북 김제시 기록연구사), 김용(전 북대학교), 김진(전북 대학교)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13(1)	2013	pp.107~134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대한 대학 연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지현(이화여자대학 교)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49(3)	2015	pp.413~436
데이터세트 기록물의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김포옥(전북대학교), 윤수영(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18(2)	2007	pp.39~59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	현문수(한국외국어대 학교)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5(2)	2005	pp.103~124
데이터세트 보존포맷 검증방안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정보 데이터 세트의 SIARD 적용을 통해	한희정(전북대학교), 윤성호(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양동민(전북대학교)	정보관리학 회지	37(2)	2020	pp.251~284
도서관 및 기록관 자료보존프로 그램에 관한 고찰	조영주(동의대학교)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4(1)	2004	pp.101~116
도서관 희귀 자료의 보존과 접근 을 위한 디지털화의 표준화	아돌프 크놀(체코 국 립도서관)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5(2)	2005	pp.167~182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위한 민 간사진기록 수집 활성화 방안: 대 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신지원(대구미술관 기록물관리전문가), 최 상희(대구가톨릭대학 교)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21(4)	2021	pp.163~181
도시철도 도면 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중심으 로--	김미연(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11)	2005	pp.181~214
독도 관련 고지도의 기술요소 개 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유종연(이화여자대학 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정연경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31(1)	2020	pp.163~192
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 분석 을 통한 독일 기록관리법제 연구	이정은(전북대학교), 박민(독일 포츠담 응 용학문대학), 윤은하 (전북대학교)	기록학연구	(61)	2019	pp.71~118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 기록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이승억(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기록학연구	(42)	2014	pp.185~211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디지털 이미 지와 메타데이터 표준화작업	박은경(McGill Univ.)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5(2)	2005	pp.139~152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 개발 - P대학 학부생 을 중심으로 -	김슬기(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15(4)	2015	pp.77~98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 리·보존 절차에 관한 연구	김명훈(한국외국어대 학교)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10(1)	2010	pp.7~29
디지털 보존 관련 학술연구 및 교과 주제분석	정의연(대구가톨릭대 학교 일반대학원 기 록관리학과), 최상희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53(3)	2019	pp.25~43
디지털 보존을 위한 PREMIS 3.0 기반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	박희진(한성대학교)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20(4)	2020	pp.185~203
디지털 보존의 비용요소에 관한 연구	정혜경(KDI국제정책 대학원대학교)	정보관리학 회지	22(1)	2005	pp.47~64
디지털 사진기록물 관리를 위한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준영(전남대학교), 이명규(전남대학교)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19(3)	2019	pp.155~178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디지털 시대의 기록물 기술과 접근 - The National Archives 사례를 중심으로 -	박지영(한성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2017	pp.87~107
디지털 시대의 인쇄본저널의 보존 방안	윤은하(한국외국어대학교), 장윤금(숙명여자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2013	pp.267~291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	전경선(숙명여자대학교), 장윤금(숙명여자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2018	pp.247~271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방안 연구	안대진(명지대학교), 임진희(명지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3(3)	2016	pp.345~370
디지털 아카이브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개념적 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서은경(한성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2004	pp.13~34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및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최원태(건국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2001	23-40
디지털 아카이브즈와 보존을 위한 실무 기술	수싱 첸(미국 플로리다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2005	pp.125~137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기술항목 프레임워크 구축	이승민(중앙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2017	pp.129~151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패키지 구축	이승민(숙명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2(3)	2015	pp.21~47
디지털 아카이빙의 워크플로우와 보존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	이수상(TG인포넷 정보기술연구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2004	pp.119~138
디지털 연구데이터 장기보존의 편익에 대한 연구	현문수(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11	pp.161~181
디지털 연구성과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	장보성(중앙대학교), 남영준(중앙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011	pp.281~309
디지털 유산의 보존 : UNESCO의 관점에서	압둘아지즈 아비드(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담당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2005	pp.183~193
디지털 자원의 웹 아카이빙을 위한 남본 프로세스 개발 및 기능 설계	오상훈(명지대학교), 최영선(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	정보관리학회지	25(4)	2008	pp.5~23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기록정책 : 기록자산으로서 정보의 관리	설문원(부산대학교)	기록학연구	(63)	2020	pp.5~36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 기록 평가론의 전환	이승억(국가기록원), 설문원(부산대학교)	기록학연구	(67)	2021	pp.57~97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의 위협관리 분석: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실 중심으로	서은경(한성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0(1)	2003	pp.5~29
디지털 정보자원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 설정 연구	홍재현(중부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2004	pp.175~204
디지털 큐레이션 정책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안영희(백석대학교 학술정보관), 박옥화(충남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2010	pp.167~186
디지털유산의 장기적 보존: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이소연(한국여성개발원)	기록학연구	(10)	2004	pp.27~64
디지털자료의 남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서혜란(신라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0(1)	2003	pp.373~399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디지털자원의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세트 개발에 관한 연구	서은정(한성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2(3)	2005	pp.233~260
러시아 기록물 분류 체계의 발전 : 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RGIA)를 중심으로	방일권(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7)	2003	pp.75~105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설문원(부산대학교)	기록학연구	(32)	2012	pp.3~44
로컬리티와 지방기록관리	설문원(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2015	151-171
마을기록물 관리를 위한 KORMARC-통합서지용 형식 적용에 관한 연구	김보일(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2019	pp.285~310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김덕목(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49)	2016	pp.299~325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기록관'을 제안한다	김덕목(한국민속기록보존소)	기록학연구	(33)	2012	pp.39~84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김선미(명지대학교),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28)	2011	pp.35~81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위한 2.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분석 - 5W1H와 태스크 모델의 관점에서	백재은(University of Tsukuba), 스기모토 시게오(University of Tsukuba)	기록학연구	(32)	2012	pp.127~176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전수교육관에 대한 연구	김지희(한국외대),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56)	2018	pp.147~182
문익환 옥중서신의 특성과 활용	오명진(사단법인 통일일의 집)	기록학연구	(66)	2020	pp.317~355
문화원형콘텐츠의 장기보존에 관한 연구- 디지털 소리자료를 중심으로 -	서혜란(신라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2006	pp.65~82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에 관한 연구	박희진(한성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2019	pp.117~136
미국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4)	2002	pp.101~122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최선영(명지대학교), 이승휘(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49)	2016	pp.77~119
미국 준현용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연방레코드센터의 기록 이관과 평가를 중심으로	조애란(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양동민(전북대학교), 윤은하(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2020	pp.139~160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에 관한 연구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2003	34-51
미국의 주립기록보존소제도	김상호(대구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1(1)	2000	125-144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	정혜린(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졸업),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20)	2009	pp.151~212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이지은(국립현대미술관),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기록학연구	(46)	2015	pp.45~93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 사항	발행 연도	수록면
민간·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 대구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	엄소영(전북대학교), 김혜영(전북대학교), 명현(전북대학교), 김용(전북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2017	pp.179~205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안) : 쟁점과 과제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기록학연구	(47)	2016	pp.197~225
민속과 기록의 만남, '민속기록'을 제창한다	김덕목(한국민속기록보존소)	기록학연구	(34)	2012	pp.165~219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인증기준: OASIS 적용사례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5(3)	2008	pp.5~25
법원기록 관리 체계의 개선방향 : 법원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곽지영(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기록학연구	(58)	2018	pp.225~262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이승일(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2010	pp.31~53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전수진(방송통신위원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2008	pp.127~152
保存圖書館으로서의 奎章外閣 研究	배현숙(계명문화대학)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2004	pp.97~117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1968~1979) - 공문서분류표와 보존연한책정기준의 개편을 중심으로 -	이승일(연세대학교), 이상훈(연세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008	pp.65~96
복합적 웹 아카이빙 정책에 관한 고찰 -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유승(중앙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008	pp.159~179
복합전자기록물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 이러닝 콘텐츠의 디지털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	이인혁(한성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박희진(한성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2017	pp.115~138
북미 대학도서관 연구데이터 관리 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 데이터 리터러시 세부 역량을 중심으로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5(4)	2018	pp.7~36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진본인증 모형 연구	이경남(전북대학교)	기록학연구	(59)	2019	pp.47~78
비밀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연구	홍덕용(부산광역시수영구청)	기록학연구	(52)	2017	pp.277~313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 연구 -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어은영(부산 남구청), 조지영(부산 사상구청)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12	pp.71~92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 지원도구 개발 연구	김다빈(한국외국어대학교), 이은정(한성대학교), 류한조(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70)	2021	pp.85~117
사립대 아카이브즈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손동유(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9)	2004	pp.143~163
사진기록의 디지털화 사례분석과 전략모형 제안에 관한 연구	김장환(명지대학교), 박주석(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2009	121-150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사진용 필름, 인화지의 감도측정에 따른 보존특성	안홍찬(한국화학연구원 응용화학연구부 선임연구원), 한상완(연세대학교), 최훈정(), 허훈(부경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2003	pp.143~155
사찰기록 관리 프로세스 연구	박성수(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26)	2010	pp.33~62
사회적 기억을 위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이해관계자 면담 연구	박진경(중앙대학교), 김유승(중앙대학교)	기록학연구	(54)	2017	pp.249~287
산업유산 아카이빙을 위한 개인 생애사 기반 수집 연구	류한조(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학연구	(66)	2020	pp.37~67
桑紙의 保存性에 관한 연구	정선영(광주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2004	pp.1~22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데이터 공유 사례에 관한 연구	박미영(Bio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안인자(동원대학교), 김준모(Biotechnology Innovation Center)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018	pp.393~416
생산부터 보존까지 기록관리 전반에서 이해하는 기록평가: 미국 뉴욕주기록관의 사례연구	신동희(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2020	pp.177~199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최인혁(기술보증기금),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2015	pp.49~76
서고환경관리를 위한 보존성 평가지수 활용에 관한 연구	윤대현(한국정보화진흥원), 신현창(이엔피)	기록학연구	(31)	2012	pp.139~161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사례	임광섭(서울특별시 기록연구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2)	2021	pp.225~230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오계윤(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대학원), 유호선(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대학원), 정힘찬(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대학원), 김용(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2018	pp.177~202
선택적 웹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	김희정(국제백신연구소(IVI)), 이혜원(서울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4(2)	2007	pp.143~160
성공적인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에 관한 연구	정영미(동의대학교), 이상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관리학회지	27(4)	2010	pp.131~152
소규모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배성중(전주교육대학교 기록연구사), 배삼열(전북대학교), 김용(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2014	pp.63~97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소량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보존챔버 설계에 관한 연구	봉춘근((주)그린솔루스), 박성진((주)그린솔루스), 이정주(용인대학교), 신현창((주)이엔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2013	pp.35~58
소비에트 초기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 연구	주은성(러시아 국립인문대학)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2007	pp.95~111
소셜미디어 아카이빙을 위한 수집 및 보존방안	김태영(전북대학교), 양동민(전북대학교), 최상기(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6(2)	2019	pp.79~10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통령기록관 전시에 관한 연구	이재나(전북대학교 기록관리대학원), 유현경(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김건(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015	pp.87~114
시·도지정부형문화재 기록화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백주현(충남대학교), 김순희(충남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2010	pp.77~97
시각예술기록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모델 설계 - KS X ISO 23081 다중 엔티티 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황진현(명지대학교), 임진희(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33)	2012	pp.155~206
시청각(사진/동영상)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례 연구	신동현(국방과학연구소 전산정보센터), 정세영(국방과학연구소 전산정보센터), 김선현(국방과학연구소 전산정보센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2009	pp.33~50
시청각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정아(이화여자대학교), 이제혁(중앙대학교), 진승식(네이버시스템(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011	pp.121~142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기관 감사인증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해영(명지대학교), 김익한(명지대학교), 심성보(한국국가기록연구원), 우현민(인천광역시 서구청 기록물관리요원), 임진희(명지대학교), 조윤선(명지대학교), 김효진(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25)	2010	pp.3~46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서혜란(신라대학교), 정원식(경남대학교), 서은경(한성대학교), 이소연(한국여성개발원), 오경주(한성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2004	pp.193~218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최석현(명지대학교), 박현숙(경희대학교), 김명훈(한국외국어대학교), 전태일(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2013	pp.7~33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리에 관한 연구	이희재(숙명여자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2004	pp.231~249
아카이빙 데이터의 활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연구: 국내외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정영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호남(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선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관리학회지	27(1)	2010	pp.185~206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재고찰 -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해	윤은하(전북대학교)	기록학연구	(47)	2016	pp.131~159
야구기록 활용에 기반한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운영 방안 연구	최태석(명지대학교), 임진희(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2016	pp.157~177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맥락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화에 관한 연구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연(나사렛대학교 접자문헌정보학과), 유종덕(경기대학교), 이종윤(경기대학교)	기록학연구	(30)	2011	pp.57~88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현황과 관리방안: 해방이후 ~ 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백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수자(서강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2005	pp.5~21
역사기록물(Archives)의 향구적인 보존화 이용 : 보존전략과 디지털정보화	이상민(정부기록보존소)	기록학연구	(1)	2000	pp.23~76
역사를 위하여 :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공공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이상민(정부기록보존소)	기록학연구	(6)	2002	pp.225~262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연구	장윤금(숙명여자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2010	pp.193~203
역사콘텐츠 활용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프레임워크 제안	이혜원(서울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2016	pp.235~256
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제안	김주섭(전북대학교), 김선태(전북대학교), 전예린(전북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019	pp.309~340
연구기록의 웹 기반 정보서비스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 NTIS 사례를 중심으로 -	남연화(전북대학교), 강주연(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오효정(전북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017	pp.345~372
연구정보를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김판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관리학회지	27(4)	2010	pp.169~191
연구기록물관리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 독일, 러시아를 중심으로 -	한희정(전북대학교), 김건(전북대학교), 박태연(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이정은(전북대학교), 윤은하(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2019	pp.211~243
연구기록물관리기관 공공프로그램의 역할과 운영방안 연구	정은진(목포대학교)	기록학연구	(16)	2007	pp.259~304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정수집검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분석	강현민(행정자치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2017	pp.125~146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개발 방향	임진희(명지대학교), 이대옥(서강대학교), 김은실(달성교육지원청),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34)	2012	pp.57~105
영구평화를 위한 초국가주의 역사로의 전환기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 유럽연합 아카이브즈 설립과정과 유럽차원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노명환(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23)	2010	pp.227~256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NA)의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백진이(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이해영(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2018	pp.49~77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이은진(전북대학교), 이유진(전북대학교), 윤은하(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2015	pp.137~164
영미의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내 계속교육 개선방안 연구	정숙영(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김순희(충남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2021	pp.231~247
영상 아카이브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지나(전주대학교), 김건(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2017	pp.109~126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설문원(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011	pp.217~247
오마이뉴스 기사 메타데이터 재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정성숙(한남대학교)	기록학연구	(34)	2012	pp.107~163
오픈엑세스기반 기관리포지터리 성공에 미치는 요인 분석	황혜경(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지연(연세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6(4)	2009	pp.35~57
오픈엑세스기반 지식정보저장소 구축에 관한 연구	황혜경(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선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혜선(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2004	pp.91~116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연구: 국내외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송주형(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 수료, 한국외대 기록학연구센터 연구원)	기록학연구	(48)	2016	pp.93~139
외교문서 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전현수(경북대학교)	기록학연구	(13)	2006	pp.213~239
외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큐레이션 프로세스 비교분석	한나은(중앙대학교), 김성희(중앙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2014	pp.93~116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김세경(동일고무벨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2007	pp.5~38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남태우(중앙대학교), 이진영(외교통상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2009	pp.451~472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	장윤금(숙명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0(4)	2013	pp.265~281
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서원경(부산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2006	pp.93~112
웹 기반 연구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NTIS vs. NKIS 비교를 통해 -	강주연(전북대학교), 남연화(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2017	pp.139~160
웹 생태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존 : 무등산을 중심으로	노시훈(전남대학교)	기록학연구	(27)	2011	pp.209~238
웹 아카이브 OASIS 수집 콘텐츠의 분석	윤정옥(청주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2014	pp.45~65
웹 아카이빙 인터페이스 유형 및 특성 분석 - 국가주도 웹 아카이빙 사업을 중심으로 -	김희정(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2010	pp.147~170
웹 아카이빙의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찰	김유승(중앙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2007	pp.20~24
웹 아카이빙의 성과와 과제	서혜란(신라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2004	pp.5~22
웹툰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이재나(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김용(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김건(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2015	pp.123~149
위험관리체계의 기록관리표준 적용방안 연구	정기애(한국전력기술(주)), 이정훈(전남대학교), 남영준(중앙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011	pp.189~215
이러닝 콘텐츠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안영희(백석대학교 학술정보관), 박옥화(충남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2009	pp.147~162
이슈 생존 주기 모형 기반 재난 아카이브 수집 방안	유호선(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5(2)	2018	pp.115~139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은경(한성대학교), 정경희(한성대학교), 최상희(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2006	pp.65~92
인공열화에 의한 국산 대량탈산 시스템의 보존성 연구	신종순(중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2001	pp.177~200
인권기록유산 가치와 지평의 확산 -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45)	2015	pp.121~153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아카이브 연구	이경용(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록학연구	(63)	2020	pp.115~144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이경용(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록학연구	(69)	2021	pp.129~152

제 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 사항	발행 연도	수록면
일본, 말레이시아, 오만의 기록물에서 분리한 유해미생물에 대한 친환경 기록물 소독장비 효과검증	김민지((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이언숙((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최영남((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최영신((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2015	pp.165~179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남경호(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30)	2011	pp.205~247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연구 - 법령과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이정용(한국국가기록원)	기록학연구	(45)	2015	pp.219~253
일본의 지방 아카이브 연구 : 나가노 지역의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용(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록학연구	(64)	2020	pp.93~118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곽건홍(한남대학교)	기록학연구	(29)	2011	pp.3~33
일제시기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 혹은 재평가 - 이론적 쟁점과 평가의 실제 -	이상민(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학연구	(14)	2006	3-51
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이정용(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록학연구	(67)	2021	pp.205~236
장기보존기록물 선별을 위한 업무분석적 평가방안: 국회를 중심으로	이원영(국회기록보존소),임효정(이화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3(3)	2006	pp.187~204
재난기록의 웹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 - OASIS 재난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김현정(서울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2017	pp.27~56
재난안전정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온라인 기록정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희정(전북대학교),박태연(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오효정(전북대학교),김용(전북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017	pp.187~213
재현 중심의 기록학 - 담기, 관리하기, 보기	류한조(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희숙(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학연구	(24)	2010	pp.3~40
전자 기록물 이관 절차 개발에 관한 연구	오삼균(성균관대학교),김희섭(경북대학교),오상훈(명지대학교),권도윤(대구기계부품연구원),원선민(성균관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008	pp.441~461
전자거래기록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 - TTPR을 중심으로 -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설문원(부산대학교),김유승(중앙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012	pp.181~205
전자기록 관리의 현황과 과제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기록학연구	(21)	2009	pp.355~383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 사항	발행 연도	수록면
전자기록 디지털컴포넌트의 포맷과 유효성 검증 기술 연구	이재영3((주)세미콘네트웍스), 최주호((주)세미콘네트웍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12	pp.29~46
전자기록 에디션 서비스 개발 사례 연구	임진희(명지대학교), 최주호((주)이산티에스), 이재영((주)이산티에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2014	pp.55~82
전자기록 장기보존 위협관리 사례	임진희(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39)	2014	pp.3~43
전자기록 장기보존 전략으로서의 에디션 사례 분석	김명훈(한국외국어대학교), 오명진(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홍(명지대학교), 임진희(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38)	2013	pp.265~309
전자기록 정보패키지 구축 사례 연구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기술규격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김성겸((주)한국문헌정보기술 기록관리시스템연구소)	기록학연구	(16)	2007	pp.97~142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김명훈(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19)	2009	pp.103~151
전자기록관리를위한 포맷등록시스템 개발 연구	유영수(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2007	pp.145~170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설계 표준의 기능요건 분석- ISO 15489를 기준으로-	이소연(한국여성개발원), 김자경(한국영상자료원)	정보관리학회지	21(3)	2004	pp.227~250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설계에 관한 연구	김용(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2007	pp.61~82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국제 연구 동향 분석 - InterPARES 3와 ITrust 성과물을 중심으로 -	박옥남(상명대학교), 박희진(한성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2016	pp.89~120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이승억(국가기록원), 설문원(부산대학교)	기록학연구	(52)	2017	pp.5~37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권도윤(경북대학교), 김희섭(경북대학교), 오삼균(성균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2009	pp.19~40
전자기록물을 위한 보존매체의 관리	송병호(상명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2005	pp.177~192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능요소 연구	김명옥(국가기록원), 이상용(이화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2010	pp.101~126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 개념을 중심으로	남성운(정부기록보존소), 윤대현(기타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2001	pp.101~120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보존포맷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희정(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양동민(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2020	pp.69~87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보존정보패키지(AIP) 구성과 구조	임진희(명지대)	기록학연구	(13)	2006	pp.41~90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생산단계의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선경(전북지방병무청 기록연구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2020	pp.19~40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 사항	발행 연도	수록면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이관절차모형에 관한 연구	천권주(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학연구	(16)	2007	pp.39~96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아젠다 개발	이경남(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008	pp.211~234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보존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이경남(한국외대)	기록학연구	(14)	2006	pp.191~240
전자기록의 증거적 가치 수립을 위한 기능요건에 관한 연구: 미국 eDiscovery 적용을 중심으로	최기쁨(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이젤마(국가기록원), 오효정(전북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8(2)	2021	pp.201~226
전자기록의 진본 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14)	2006	pp.93~118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	서혜란(신라대학교), 서은경(한성대학교), 이소연(한성여성개발원)	정보관리학회지	20(2)	2003	pp.241~262
전자기록의 출처확인 지원전략	송병호(상명대학교)	기록학연구	(25)	2010	pp.47~89
전자문서 아카이빙 표준모델 연구	이원영(국회기록보존소), 강진영(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관리학회지	22(2)	2005	pp.147~164
전자문서의 영구보존을 위한 표준화 연구 동향	박은정(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InterPARES 프로젝트 미국 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	2002	pp.97~118
전자저널 아카이빙을 위한 OAIS 참조모형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정(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2003	pp.115~141
전자저널의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신은자(세종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18(3)	2001	139~158
전통예술품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오삼균(성균관대학교), 권기성(강서도서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2007	pp.387~412
점자도서관의 문서 생산과 관리에 관한 연구	석정은(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기록학연구	(40)	2014	pp.191~223
정보부존재 해결방안으로서 기록생산단계 강화방안 연구	권현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2018	pp.25~43
정부 여론조사자료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남영준(중앙대학교), 서만덕(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2009	pp.175~196
정부부처의 페이스북 페이지 기록물 수집·보존·재현 방법	장인호(㈜테스트마이다스), 황윤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규철(충남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2014	pp.117~12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 현황과 개선과제	이미영(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53)	2017	pp.229~259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관리를 위한 수집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수진(한국교통연구원),정은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2012	pp.109~124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조선의 식민지 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김경남(호세이대학)	기록학연구	(39)	2014	pp.282~319
조계종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곽정 (조계종중앙기록관)	기록학연구	(11)	2005	pp.144~180
조계종 총무원 보존기록물정리방법에 대한 사례연구	이아현(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학연구	(6)	2002	pp.121~160
조선 가각고의 인력구성과 존재 시기에 관한 재고찰	이형중 (한국연구재단)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2020	pp.23~37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와 평가	이송순(전일만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기록학연구	(14)	2006	pp.53~91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이경용(국가기록원)	기록학연구	(10)	2004	pp.226~275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	이승일(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기록학연구	(15)	2007	pp.3~37
조선후기의 기록물 편찬과 관리	신병주(건국대학교)	기록학연구	(17)	2008	pp.39~84
종이기록물 보존환경의 현단계와 개선 방안	손혜경(경성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3)	2000	213-241
중국 조선족 한글정보자원 생산과 출판물에 대한 연구	이명규(전남대학교), 장우권(전남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2004	pp.401~422
중국의 당안유산(檔案遺產) 보존과 디지털화 방향	평 후이린(중국인민대학)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2005	pp.153~165
중국의 도시건설기록관(都市建設紀錄館)의 기록관리	이승휘(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13)	2006	pp.241~29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종이기록물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로서 JPEG 포맷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강현민(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016	pp.489~510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건립 및 운영 방안 : 법무부 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임진수(법무부)	기록학연구	(59)	2019	pp.321~353
중앙행정기관의 소셜미디어 아카이브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귀영(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015	pp.141~167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 분석	최정민(서강대학교)	기록학연구	(45)	2015	pp.155~188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최민영(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2007	pp.171~19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지수걸(공주대학교)	기록학연구	(21)	2009	pp.247~281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건설건축분야를 중심으로 -	이희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1)	2016	pp.5~25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 연구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	안대진(명지대학교), 이해영(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3	pp.149~178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지방자치단체 처리과 기록물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례연구	전가희(경상남도청)	기록학연구	(70)	2021	pp.119~156
지방자치단체의 소셜미디어 기록 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구성요소 도출 연구: 국외 정책·사례 중심으로	이정민(전북대학교), 이정은(전북대학교), 신청룡(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기록학연구	(65)	2020	pp.111~150
지식정보자원 보존 체계에 관한 연구	조재인(인천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2004	pp.85~104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배은희(기록&출판 <빨간집>)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2018	pp.85~108
지역 기록을 활용한 로컬리티의 형성과 재구성 - 일본 지바[千葉]현 다테야마[館山] 사례를 중심으로 -	송정숙(부산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2015	pp.203~225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설문원(부산대학교)	기록학연구	(26)	2010	pp.103~149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경기도메모리' 사례	신정아(경기도사이버도서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2020	pp.161~166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권순명(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이승휘(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21)	2009	pp.41~84
지역 음식문화의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명시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조혜영(한국외국어대학교),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60)	2019	pp.195~237
지역방송국 기록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김은중(전북대학교), 김수정(전북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4(4)	2017	pp.293~320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InterPARES 성과물에 기초하여	이윤주(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기록학연구	(19)	2009	pp.193~249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자기록물관리방안	송병호(상명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005	pp.43~59
청남대 건립 관련 잔존 기록물 조사 연구	정상희(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47)	2016	pp.161~193
체계적인 구술기록 생산을 위한 제언	손동유(명지대학교), 권용찬(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2013	pp.135~158
축제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개용 소프트웨어 비교연구: 남원시 춘향제를 중심으로	방기영(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김건(전북대학교), 황창주(동남보건대학교), 김용(전북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3(3)	2016	pp.31~61
카톨릭 역사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아람(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김용(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안승권((주)바른교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016	pp.359~384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장우권(전남대학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012	pp.403~425
클라우드 저장소 장점을 활용한 기록 콘텐츠 관리기능 설계	임진희(서울특별시청)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2019	pp.271~292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애플리케이션 전략을 활용한 전자기록 장기 보존 방안 연구	이봉환(대전대학교), 한희정(전북대학교), 조철용(㈜이노그리드), 왕호성(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양동민(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2019	pp.1~33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 설계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정예용(전북대학교), 심갑용(전북대학교), 김용(전북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2014	pp.209~233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문서 파일 포맷의 선택 전략	임진희(명지대학교)	기록학연구	(66)	2020	pp.5~35
통감부~일제 초기 갑오개혁과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분류 - 분류도장·창고번호도장을 중심으로 -	박성준(경희대학교)	기록학연구	(22)	2009	pp.115~155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재영1(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2020	pp.39~54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이재영1(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2021	pp.75~95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최기쁨(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김휘연(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장지혜(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오효정(전북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2020	pp.55~76
포스코 보존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고선미(법원행정처)	기록학연구	(8)	2003	pp.96~136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 보존 기능 평가 연구 - 문서보존 포맷변환 기능을 중심으로 -	현문수(부산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3	pp.115~147
표준 전자문서 이관 시 발생하는 무결성 보장 및 오류 해결에 대한 제언	유영문(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2020	pp.1~21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평가·폐기 기능 평가	이보람(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38)	2013	pp.37~7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 연구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기록학연구	(43)	2015	pp.71~102
품질기능전개(QFD)를 이용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서비스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	이수진(전북대학교), 손은정(전북대학교), 이숙희(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기록학연구	(58)	2018	pp.263~297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 적합성여부에 관한 연구	최윤정(서면초등학교), 남태우(중앙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012	pp.117~142
학교역사관 기록물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J교육청 학교역사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장효정(전북대학교), 김수정(전북대학교)	기록학연구	(53)	2017	pp.161~200

제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수록면
학생기록물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 연구 -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	강혜라(전남대학교), 장우권(전남대학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017	pp.95~123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관리의 현황조사에 관한 연구	한상완(연세대학교), 김성수(청주대학교), 윤대현(기타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2001	pp.131~152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국가기록원 개편	이승일(강릉원주대학교)	기록학연구	(41)	2014	pp.39~73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34)	2012	pp.221~250
한국 기록관리체제 성립과정과 구조 -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이경용(정부기록보존소)	기록학연구	(8)	2003	pp.3~56
한국 자료관 제도의 역할과 특징에 관한 연구	방효순(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2003	pp.187~205
한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 공개에 관한 검토	이진영(국가기록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1)	2003	pp.129~140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1969~1999)	전현수(경북대학교)	기록학연구	(15)	2007	pp.39~66
한국의 민간기업 기록보존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상호(대구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2001	205~228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 현황 및 과제	김성수(청주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2005	pp.27~48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	이상훈(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기록학연구	(21)	2009	pp.169~246
한류 대중문화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초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백재은(덕성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38(3)	2021	pp.215~238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한 AtoM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K-Food 콘텐츠를 중심으로	심갑용(전북대학교), 유현경(전북대학교), 문상훈(전북대학교), 이윤용(전북대학교), 이정현(전북대학교), 김용(전북대학교)	기록학연구	(43)	2015	pp.5~42
함께 만드는 미래: 디지털 융합과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정보관리학회지	29(3)	2012	pp.235~256
해외 전자저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최호남(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응봉(충남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2005	pp.161~183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나영선(한국외국어대학교), 왕영훈(한국외국어대학교), 양월운(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008	pp.97~121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김명훈(한국외국어대학교), 임은정(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17)	2008	pp.115~156
행정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방안	이예경(한국외국어대학교), 김금이(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진희(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	(17)	2008	pp.157~202

제 목	연구자사항	학술지명	권호 사항	발행 연도	수록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사례 분석: 전자인사관리시 스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 성을 중심으로	신 정 업 (인 사 혁 신 처 기록연구관)	한 국 기 록 관 리 학 회 지	21(3)	2021	pp.227~246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 리방안	왕호성(국가기록원), 설문원(부산대학교)	한 국 기 록 관 리 학 회 지	17(3)	2017	pp.23~4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 별 기준 및 절차 연구	조은희((주)딤스),임 진희(한국국가기록연 구원)	기록학연구	(19)	2009	pp.251~29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으 로서 SIARD 검증에 관한 연구	윤성호(전북대학교), 이정은(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 학과 4단계 BK21 교 육연구단),양동민(전 북대학교)	한 국 기 록 관 리 학 회 지	21(3)	2021	pp.99~118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이원규(연세대학교)	기록학연구	(12)	2005	pp.81~135
행정정보시스템 기록 이관 절차 와 방법 연구 - 원자력안전위원 회 MIDAS RASIS RI/RG 업무 기록 사례를 중심으로 -	황진현(한국외국어대 학교),박종연(한국외 국어대학교 정보·기 록관리학과),이태훈 (명지대학교 기록정 보과학전문대학원),임 진희(명지대학교)	한 국 기 록 관 리 학 회 지	14(3)	2014	pp.7~32
헌법재판소 기록관리현황과 개선 방안	이철환(금융위원회), 이영학(한국외국어대 학교)	기록학연구	(38)	2013	pp.75~124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 기록보존에 관한 법령 연구 - 의회 문서보관소에서 국 립문서보관소로의 진화과정에 대 한 연구 -	조청현(한국외국어대 학교)	기록학연구	(14)	2006	pp.289~324
혁명시기 중국공산당의 문서당안 관리	이원규(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	기록학연구	(22)	2009	pp.157~199
현용·준현용 단계의 기록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곽정(국가기록원)	기록학연구	(16)	2007	pp.3~37
형사사건 기록 편철·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박성진(국가기록원)	한 국 기 록 관 리 학 회 지	17(2)	2017	pp.189~205
호주의 레코드키퍼 시스템에 대 한 연구	이영숙(국가기록원)	한 국 기 록 관 리 학 회 지	4(2)	2004	76-90

ABSTRACT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Preservation in Korea from 2000 to 2021

Na, Yon-Whee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research trends of archival preservation by understanding the productivity of archival preservation stud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and identifying the change in research topics over time.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conducted researcher and keyword analysis. 463 articles on 'archival preservation studies' were analyzed, published from 2000 to 2021 in two major journals in the field of archive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and four major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fter extracting and refining the author-assigned keywords for keyword network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nd visualized the degree centrality analysis and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 by using NetMiner V.4.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research topics of archival preservation over time, this study analyzed the collected research papers by dividing them into three time periods, 2000–2007, 2008–2014, and 2015–2021, according to the period they were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authors with the highest productivity of archival preservation research in all periods (2000–2021) were ‘Seol Mun–Won’, ‘Lee So–Yeon’, and ‘Yim Jin–Hee’. As for the research type, as time passed, the number of independent studies gradually decreased while the number of joint studies increas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searcher's affiliated institution showed that the ratio of authors belonging to ‘university’ in all periods (2000–2021) was the highest at 73.82% (592 persons), followed by ‘research institute’ (7.61%, 61 persons),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5.24%, 42 persons), ‘others (IT industry and private companies)’ (3.87%, 31 persons), ‘National Archives of Korea’ (3.49%, 28 persons), ‘central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2.62%, 21 persons), and ‘library/art gallery’ (2.37%, 19 person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archival preservation research in the entire period (2000–2021) by subject are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author-assigned keywords showed that the ‘procedure/process’ areas were the most productive. And, ‘technology, tools’, ‘institution’, ‘record types’, ‘law, policy’, ‘system’, ‘service’, and ‘theory, education’ were followed.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revealed that the 'electronic records', 'long-term preservation', 'digital preservation', 'OAIS reference model', and 'digital archive' are the most actively studied research topic as keywords with high degree centrality. Lastly, in terms of the expandability of the subject keywords, 'electronic records', 'long-term preservation', 'digital preservation', 'OAIS reference model', and 'archiving' were identified as keywords with high betweenness centrality, which are linked to specific subject areas in archival preservation research and are highly expandable.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 keywords for the research papers on archival preservation in Korea, which have high influence and expandability, were 'electronic records' and 'long-term preservation' in all periods, 'OAIS reference model' in the first period, 'electronic records' in the second period, and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 and 'long-term preservation' in the third perio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 in the research topic of archival preservation in Korea over time. The detailed results for each period are as follows: a conceptual framework and theory-oriented study for archival preservation such as 'digital preservation', 'digitalization', and 'OAIS reference model' in the first period, research focused on procedur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related to conservation activities, such as 'electronic record', 'appraisal', and 'DRAMBORA', in the second period, and archival preserv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such as 'data se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and 'social media' in the third period.

As the importance of preservation is recently emphasized in records management and the concept and scope of related research are expan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grasping the futur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preservation.

【Keywords】 : archival preservation, research trend analysis, researcher analysis, keyword analysis, network analysis,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